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석사학위논문

어머니의 자존감 및 양육효능감이
유아의 사회적 능력에 미치는 영향
- 양육스트레스의 조절효과 -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상담심리전공

허 희 숙

2015년 8월

<국문초록>

어머니의 자존감 및 양육효능감이 유아의 사회적 능력에 미치는 영향 - 양육스트레스의 조절효과 -

허 희 숙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상담심리전공

지도교수 최 보 영

본 연구는 유아를 양육하고 있는 제주지역 어머니를 대상으로 어머니의 자존감 및 양육효능감이 유아의 사회적 능력 간 관계에서 양육스트레스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고자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어머니의 자존감과 유아의 사회적 능력과의 관계에서 양육스트레스의 조절효과가 있는가?

연구문제 2. 어머니의 양육효능감과 유아의 사회적 능력과의 관계에서 양육스트레스의 조절효과가 있는가?

이상의 연구문제를 검증하기 위해 도내 어린이집에 재원하고 있는 유아(만3~5세)를 둔 어머니와 유아의 담임교사를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조사도구는 어머니의 자존감, 양육효능감, 유아의 사회적 능력 그리고 양육스트레스 척도로 구성되었다. 어머니의 자존감, 양육효능감, 양육스트레스는 어머니에 의해, 유아의 사회적 능력은 교사에 의해 평가되었다

연구대상인 사회 인구학적 특성과 주요변수의 기술 통계치를 살펴보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각 변인들 간의 전반적인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상관분석을 시행하였다. 또한 조절변인인 양육스트레스 간의 전반적인 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어머니의 자존감과 유아의 사회적 능력 간 상관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어머니의 자존감이 높아질수록 유아의 사회적 능력 수준 또한 함께 높아지는 것

을 의미하는 것이다. 한편 어머니의 자존감과 양육스트레스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양육스트레스와 유아의 사회적 능력간의 부적의 상관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어머니의 자존감과 양육스트레스 상호작용 항을 추가로 투입한 결과 그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어머니의 자존감과 유아의 사회적 능력의 관계에서 양육스트레스의 조절효과가 확인되었다. 자존감이 낮은 집단의 경우에는 양육스트레스의 높고 낮음에 따른 유아의 사회적 능력의 차이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반면, 자존감이 높은 집단의 경우에는 양육스트레스가 낮은 집단과 높은 집단 간 유아의 사회적 능력의 차이가 크게 벌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양육효능감과 유아의 사회적 능력 간의 상관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이 높을수록 유아의 사회적 능력 수준 또한 함께 높아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또한 양육효능감과 양육스트레스 상호작용 항을 추가로 투입한 결과 그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양육효능감과 유아의 사회적 능력의 관계에서 양육스트레스의 조절효과가 확인되었다. 즉, 양육효능감이 낮은 집단의 경우에는 양육스트레스의 높고 낮음에 따른 유아의 사회적 능력의 차이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반면, 양육효능감이 높은 집단의 경우에는 양육스트레스가 낮은 집단과 높은 집단 간 유아의 사회적 능력의 차이가 크게 벌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결론적으로 자존감 및 양육효능감이 낮은 집단의 경우에는 양육스트레스가 높고 낮음에 따른 유아의 사회적 능력에 차이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반면, 자존감 또는 양육효능감이 높은 집단의 경우에는 양육스트레스가 낮은 집단과 높은 집단 간 유아의 사회적 능력 차이가 크게 벌어지고 있음을 확인했다. 따라서 양육스트레스를 어떻게 인지하고 어떻게 관리 하느냐의 문제가 중요함을 알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효과적으로 양육스트레스에 대처하고 관리하는 방법모색과 부모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의 방향성 등을 제시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또한, 본 연구의 조절변인인 양육스트레스를 “결함(deficit)”의 관점에서 부모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문제영역으로 지적하였으나 반면에 긍정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는 연구들이 있다. 특히, 일반적인 스트레스와 관련한 문헌들에서 가벼운 정도(mild)의 스트레스는 오히려 개인적인 성장을 자극하고, 최적 수준의 각성을 유지시켜 적응을 도울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Cohen, 1994). 또한 Crnic 과 Low(2002)은 어떤 어머니들은 자녀의 까다로움이나 잘못된 행동에 잘 대처하지만, 어떤 어머니들의 경우에는 더욱 취약할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따라서 다양한 관점에서 양육스트레스를 바라보아 양육스트레스의 수준이나 양육스트레스의 지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모의 특성을 함께 고려함으로써 좀 더 구체적인 가설 검증이 가능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생태학적 맥락에서 부모의 훈육 방식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지지, 부모의 심리적 안정감, 성격특성 뿐만 아니라 아동의 기질, 발달수준 등의 다양한 변인들을 고려함으로써 더 포괄적인 이해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

목 차

I.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문제	6
3. 연구가설	6
4. 용어의 정의	6
II. 이론적 배경	9
1. 유아의 사회적 능력	9
2. 자존감	15
3. 양육효능감	22
4. 양육스트레스	26
5. 유아의 사회적 능력, 어머니의 자존감, 양육효능감, 양육스트레스의 관계	31
III. 연구방법 및 절차	35
1. 연구대상	35
2. 연구절차	37
3. 연구모형	39
4. 측정도구	40
5. 자료의 분석	43
IV. 연구결과 및 해석	45
1. 어머니의 자존감과 유아의 사회적 능력 간 관계에서 양육스트레스의 조절효과	45
2. 양육효능감과 유아의 사회적 능력 간 관계에서 양육스트레스의 조절효과	47
V. 논의 및 결론	50
1. 요약 및 논의	50
2. 제언	54
참고문헌	56
<Abstract>	74
부록목차	77

표 목 차

표 III-1. 연구대상 어머니의 연령별 특성	35
표 III-2. 연구대상 어머니의 학력별 특성	36
표 III-3. 연구대상 어머니의 직업별 특성	36
표 III-4. 연구대상 어머니의 자녀수별 특성	37
표 III-5. 연구대상 가구의 평균수입	37
표 III-6. 자료의 수집 일정	38
표 III-7. 각 척도별 보고자	40
표 III-8. 자존감의 문항 및 신뢰도	40
표 III-9. 양육효능감 문항 및 신뢰도	41
표 III-10. 양육스트레스 문항 및 신뢰도	42
표 III-11. 사회적 능력 척도의 하위영역별 문항 및 신뢰도	43
표 IV-1. 어머니 자존감, 유아의 사회적 능력, 양육스트레스 간 상관계수	45
표 IV-2. 유아의 사회적 능력에 대한 어머니의 자존감과 양육스트레스의 회귀분석 결과	46
표 IV-3. 양육효능감, 유아의 사회적 능력, 양육스트레스 간 상관계수	47
표 IV-4. 유아의 사회적 능력에 대한 양육효능감과 양육스트레스의 회귀분석 결과	48

그림 목차

그림 III-1. 어머니의 자존감이 유아의 사회적 능력과의 관계에서 양육스트레스 조절효과	39
그림 III-2.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이 유아의 사회적 능력과의 관계에서 양육스트레스 조절효과	39
그림 IV-1. 사회적 능력에 대한 자존감과 양육스트레스의 상호작용 효과	47
그림 IV-2. 사회적 능력에 대한 양육효능감과 양육스트레스의 상호작용 효과	49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인간은 사회화를 통해 삶의 방식을 터득하며 살아가게 된다. 유아들 역시 가정이나 교육기관 등 자기가 속한 사회에서 사회화를 통해 사회적인 적응 및 유능하고 성숙한 인간, 즉, 한 인격체로 성장하게 된다(Melson, 1989). 사회화를 통해 유아는 가족 관계 뿐 아니라 또래와의 관계를 경험하며 사회와 그 구성원이 요구하는 태도와 사고방식을 형성하게 된다. 이렇듯 타인과의 관계를 잘 형성하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 환경에 적응하고 상호작용하기 위한 사회적 능력이 필요한데, 이러한 능력은 미래의 사회생활에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할 기본적 능력으로 강조되고 있다(김현미, 2004).

사회적 능력(social competence)은 한 사회에 깊이 자리 잡힌 근본적인 가치를 반영하는 것으로서, 인간이 사회적 상호작용을 하며 살아가는데 요구되는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는 기술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능력(송해영, 2007)과 상호작용의 주도 뿐 아니라 타인의 사회적 표현에 대한 반응, 호혜적 상호작용을 방해할 수 있는 부정적 행동을 억제할 수 있는 능력(최정미, 1999)을 포함한다. 이러한 사회적 능력이 발달된 유아는 독립적이고 성취 지향적이며 성인에게는 반응적이고 규칙에 순응하는 등 성장하면서 또래나 성인과의 효과적인 상호작용을 포함한 다양한 사회적 행동들을 확장시켜 나간다. 반면, 사회적 능력이 부족한 유아는 자신에 대해 부정적인 자아개념을 가지게 되거나 또래에게 거부되는 등 발달적 어려움을 가지며 이러한 현상은 유아기에서 청소년기 까지 지속되어 낮은 학업수행을 비롯한 학교관련 문제 및 청소년 비행, 우울증과 같은 사회적 부적응을 초래하게 되고(Coie, Dodge, & Coppotelli, 1992), 나아가 성인이 되어 대인관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등 후속적인 발달에 직,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서유지, 도현심, 최미경, 2006).

Hess(1981)에 의하면, 사회적 능력은 6세 이전에 형성되기 시작하여 초등학교 시기가 끝날 때쯤 사회에 대한 기본개념, 태도, 가치가 성립되어 간다고 하였다. 따라서 유아기에 성취한 사회적 능력은 생의 초기뿐만 아니라 이후 전 생애에 걸쳐 영향을 미치며 발달 단계에 따라 아동 초기의 애착, 부모의 양육행동, 그리고 이후의 사회적 적응과 깊은 관련성이 있으며 이 시기에 나타나는 사회적 능력의 질은

후기 학교생활에서의 사회적·학습적 능력을 정확하게 예측해 준다는 점에서 성장 발달 과정에서 유아기가 그 어느 발달단계 보다 중요하다고 했다.

사회적 능력이나 대인간의 능력과 관련된 행동들은 사회생활의 참여에 필수적이며, 사회적 능력과 관련된 변인은 학업성취의 예언도를 높여줄 수 있고, 감정이입, 감정조절, 자아와 같은 독립된 인간행동의 이해를 도와주기 때문에(O'Mally, 1997) 사회적 능력에 대한 연구가 중요시 된다. 유아는 자신을 둘러싼 주변 환경과의 끊임없는 상호작용을 통해 사회적 능력을 습득하며 발달해가므로, 유아에게 어떠한 환경을 제공해주느냐 하는 것은 유아의 성장과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과거에는 유아가 가정에서 부모, 친인척과 함께하는 시간이 길었지만 요즘에는 가족구조의 변화와 맞벌이 부부의 증가, 조기교육, 무상교육 정부정책 등의 사회적 변화로 보육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증대하여 가정에서 부모와 함께하는 시간보다 유아 교육기관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길어졌다. 이에 따라 유아들은 일찍부터 사회적 관계를 경험하고 많은 시간을 타인과 함께 보내게 됨으로써 다른 사람들과 유능하게 상호작용하기 위한 기술, 즉 사회적 능력을 습득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게 부각되었다(한민경, 2002).

유아의 사회적 능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사회적 능력과 관련된 연구가 꾸준히 이루어져 왔는데, 이러한 선행연구들은 크게 유아의 성별, 연령, 기질, 정서 조절능력, 언어능력, 정서지능 및 표현능력과 관련한 유아관련 변인연구(김보미, 2009; 박지숙, 2008; 윤지영, 이용주, 2006; 이성현, 2012; 이혜원, 2011; 임은정, 2011; 정재은, 이종향, 2012; 한애희, 2009; 허미경, 이소은, 2010)와 부모의 양육태도, 양육스트레스, 역할 만족도, 가치관, 정서표현, 애착 관계 등의 변인연구(김영옥, 홍지명, 김세루, 김권일, 2008; 나지혜, 2012; 신현숙, 2005; 우수경, 정영숙, 2003; 이상은, 신건호, 2003; 이성현, 2012; 이한애, 2008; 이현미, 2013), 그리고 교사와의 관계, 교사의 정서 표현성, 직무 만족도, 교사효능감과 관련된 교사관련 변인연구(박경, 2012; 박수영, 2010; 서주희, 2013; 안상미, 2002; 여연승, 2003; 유진희, 2006; 장미정, 2011; 전경아, 2003; 조상훈, 2007)로 구분할 수 있다.

이처럼 유아의 사회적 능력과 관계된 변인들에 관한 많은 연구가 수행되었지만, 이들 연구들은 유아, 부모, 교사의 단순관계성이나 영향력을 살펴본 연구가 대다수이다. 그러므로 유아의 사회적 능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단일 변인들과의 단순한 관계성을 알아보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유아와 가장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자존감

및 양육효능감 등 어머니의 변인과 아동의 사회적 능력간의 관계에서 양육행동의 선행변인인 양육스트레스의 조절효과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에 자존감 및 양육효능감이 유아의 사회적 능력 간의 관계에서 양육스트레스의 조절효과를 검증하여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방식 및 스트레스 조절을 위한 다양한 사회적 제도마련에 기초를 제공하고, 프로그램 구성 등에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양육스트레스는 개인의 성향이나 문제뿐만 아니라 내·외부 환경 등 다양한 상황으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증가추세에 있다. 우선 높은 교육열로 인한 조기교육으로 인해 부모들의 양육스트레스는 더욱 다양하고 복잡해지고 있다. 또한, 집단주의와 조급성 등 치열한 경쟁 속에서 이겨내야만 하는 현실성이다. 남들이 하면 나도 해야만 할 것 같은 불안한 심리와 남들보다 좀 더 일찍 시작해야 한다는 조급함이 더욱 양육에 대한 스트레스를 가중시키고 있다. 이와 더불어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여성가족패널」(2012년) 자료에 의하면 맞벌이 가구 여성의 가사노동 및 양육시간이 2007년도 주중 1일 평균 179.9분에서 2012년 168.1분으로 다소 감소하였으나 여성과 남성의 가사노동 및 자녀양육 시간의 차이는 2012년 기준 여성 168.1분 남성 25.6분으로 6.5배가 많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양육스트레스에서 여성이 자유로울 수 없음을 알려주고 있다. 또한, 자녀양육의 어려움에 관한 2010년도 여성가족부, 「가족실태조사」 분석 자료를 보면 맞벌이 여부에 관계없이 상당수가 자녀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순위를 보면 먼저 ‘양육 및 보육관련 정보부족’이 40.4%, 다음으로 ‘자녀 양육스트레스’가 35.9%, 이 밖에 ‘자녀를 직접 돌볼 시간 부족’이 29.9%, ‘자녀를 돌봐줄 사람을 구하기 어려움’이 21%를 차지하고 있다.

이처럼 양육부담이 어머니에게 많은 책임이 지워지고 있고 각종 가사노동과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여러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양육스트레스는 증폭되기 마련이며 위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경쟁사회 구도, 보육환경 미비, 가사노동 시간 증가 일과 양육의 양립 불가능성 및 경제활동 참가 등 이에 따른 양육부담으로 발생하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는 자녀 양육에 있어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또한, 양육스트레스를 주제로 한 국내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낮은 집단에서는 높은 집단의 아동들보다 사회적 능력이 높게 나타났으며 어머니가 우울감을 덜 느끼고 배우자와의 관계 등이 좋았다. 또한 유아에 대한 애정 정도가 깊고 다루기 힘든 행동상의 문제가 많지 않은 자녀를 둔 경우 그러한 문제를 많이 가진 경우보다 양육스트레스를 덜 느끼는 것으로 확인되었다(문혜련, 1999). 즉, 스

트레스가 어머니의 심리적 안녕과 부정적 영향을 줌으로써 어머니의 우울, 불안 등을 증가시키고 이러한 우울, 불안은 어머니의 부적절한 양육행동과 관련된다. 자녀를 양육하는데 있어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수록 부모는 바람직한 양육행동을 나타내지 못하며 바람직하지 못한 양육행동은 유아의 사회적 능력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있다.

이에 우선 어머니의 변인인 자존감 및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이 유아의 사회적 능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고 어머니가 인지하는 양육스트레스가 어떠한 상호작용효과를 나타내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유아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변인 중 어머니의 개인 변인으로 자존감은 유아의 문제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졌다(김연, 2007). 어머니의 자존감이 높을수록 아동의 공격성 등 외현화 문제행동이 낮게 나타나고(곽소현, 김순옥, 2005; 전영주, 2010), 유아의 주의집중력 중 부주의가 낮게 나타나며(조금남, 2010), 유아의 내면화 문제행동이 낮게 나타난다고 보고되었다(남소현, 김영희, 2000). 어머니의 자존감은 양육방식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되었다(김정연, 1993), 자존감이 높은 어머니는 자녀의 행동에 대해 분명한 한계를 설정하여 지도와 훈육에 일관성 있는 양육방식과 애정적인 태도를 보이고(Grossman, Polck & Golding, 1998), 수용적이며 독립심을 권장하는 태도를 보인다고 하였다(손화희, 윤중희, 1990).

반면 어머니가 자존감이 낮을수록 과보호적, 지시적이고 통제적, 거부적이고 적대적 양육방식을 많이 사용한다고 하였으며(조금남, 2010), 자존감이 낮은 부모는 강압적이고 거부적이며 통제적이고, 신체적 체벌 등의 적절하지 못한 양육방식을 보인다고 하였다(권미란, 2007). 즉, 어머니가 자존감이 높을수록 수용적 양육방식을 사용하고, 자존감이 낮을수록 통제적 양육방식을 사용하는데, 어머니가 통제를 많이 할수록 유아의 정서 불안성, 신체증상, 주의집중, 공격성 등의 외현화 문제행동과 내면화 문제행동이 높게 나타난다고 하였다(임민택, 2006; 허태희, 2008). 이상의 선행연구들을 종합해보면 어머니의 자존감이 유아의 사회적 능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됨을 알 수 있다.

이외에도 양육행동을 설명하는 또 다른 인지적 측면의 변인으로서 부모의 양육효능감이 아동의 사회적 능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들이 많이 보고되고 있다(문태형, 2002; Coleman & Karrake, 1998; Teti & Golfand, 1991). 양육효능감은 아동과 어머니의 심리적 안녕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여 어머니가 자녀를 양육

하는 데 자신의 역할에 대해 어떻게 지각하느냐에 따라 아동의 사회적 적응에 영향을 미친다. 즉, 높은 양육효능감을 지닌 부모는 자녀의 발달과 심리사회적 적응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Dorsey, Klein, Forehand & Family Health Project Research group, 1999). 국내연구에서도 양육효능감이 높은 어머니의 아이는 사회적 능력이 높은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문태형, 2002). 이와 같은 연구들을 통해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은 아동의 사회적 능력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결과적으로 어머니의 변인인 자존감과 양육효능감은 유아의 사회적 능력과 관련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6세 이전에 형성되기 시작하는 유아의 사회적 능력이 후기 학교 생활과 관련성이 깊고 성장발달 과정에서 중요한 시기인 유아를 양육하는 자녀를 둔 어머니를 연구 대상으로 하여 어머니의 자존감과 양육효능감이 유아의 사회적 능력과의 관계에서 양육스트레스의 조절효과가 있는지를 검증하는데 목적이 있다. 또한 어머니들의 양육스트레스의 대처기술을 강화하는 교육과 부모역할 만족도를 높이며 자녀양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부모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궁극적으로 자녀의 사회성 발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양육스트레스 연구에 대한 기초 자료로 제공하고자 한다.

2. 연구문제

이상에서 제기한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을 근거로 하여 연구문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어머니의 자존감과 유아의 사회적 능력과의 관계에서 양육스트레스의 조절효과가 있는가?

연구문제 2. 어머니의 양육효능감과 유아의 사회적 능력과의 관계에서 양육스트레스의 조절효과가 있는가?

3. 연구가설

가 설 1. 어머니의 자존감과 유아의 사회적 능력관계에서 양육스트레스의 조절효과가 있을 것이다.

가 설 2. 어머니의 양육효능감과 유아의 사회적 능력관계에서 양육스트레스의 조절효과가 있을 것이다.

4. 용어의 정의

가. 어머니

본 연구에서 어머니는 2014. 12월 조사시점 기준으로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유아(한국나이 : 5세, 6세, 7세)를 둔 어머니를 지칭한다.

나. 유아의 사회적 능력

사회적 능력이란 사회적 특성의 광범위한 영역을 말하는 것으로 어느 시대, 어느 곳에서나 사용될 수 있는 보편적인 것이 아니라 그 사회에 깊이 자리 잡고 있는 근본 가치를 반영하는 것으로 학자들마다 다른 견해를 취하고 있는 개념이다(한은규,

2004). 또한 인간이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능력을 뜻하며, 사회적인 특면이 강조된 개념으로서 자신이 소속된 사회에서 적절한 기술을 사용하여 사회적인 목표를 달성하는 능력(Ford, 1982)으로 인식되고 있다. 사회적 능력은 사회구성원으로 성장 발달하면서 사회적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수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성인과 마찬가지로 유아에게 있어서도 사회적 적응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양은호, 2012). 본 연구에서의 사회적능력은 양외점(1993), 김영지(1994)의 연구에서 번안하였던 설문지를 수정·보완하여 사용한 이정연(1999)의 질문지로 측정된 점수를 의미한다. 유아의 사회적 능력은 사회적 활동성, 안정성, 협조성, 참여 자율성, 순응성, 지도성으로 구분하여 적용하였다.

다. 자존감

본 연구에서는 인간의 내면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것으로 자기를 인정하고 의식하며 정당하기 위하여 의식적·무의식적으로 노력하는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에너지를 말하며 역경에 맞서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자신에 대한 믿음으로 정의한다. 구체적으로는 Rosenberg (1965)가 개발한 자존감 척도 (self-Esteem Questionnaire)를 전병제가(1974)가 번안한 척도를 사용한 김연(2007)의 질문지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된 점수를 의미하며 자신의 자아상, 자기수용의 정도를 보고 있다.

라. 양육효능감

양육효능감이란 자녀를 잘 양육하며 자녀 양육과 연관된 어려움이나 문제에 대해 잘 해결할 수 있다는 부모로서의 자신의 능력에 대한 지각을 의미하며 자녀의 발달적 결과에 대해 부모자신이 어느 정도로 영향을 줄 수 있는가에 대한 기대를 의미한다. 즉, 자녀를 잘 양육하고 훈육하며 자녀와 문제가 생겨도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다는 어머니 자신의 능력에 대한 지각을 의미한다(신숙재, 1997). 이에 본 연구에서는 부모역할에 대한 자신감과 부모 역할에 대한 어려움의 두 가지 요인으로 구분된다(안지영, 2001)

- 1) 부모역할에 대한 자신감 : 부모역할, 즉 어머니가 아동을 양육하는데 대한 자신감을 의미한다.
- 2) 부모역할에 대한 어려움 : 어머니가 아동을 양육하는 상황에서 아이를 다루기 어려워하거나 자신감이 부족한 정도를 의미한다.

마. 양육스트레스

양육스트레스는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어머니의 특성과 아동의 까다로운 기질이나 행동특성, 그 외 내·외부 환경적 요인들로 인해 어머니가 경험하는 스트레스를 말한다. 즉, 자녀양육에 관련된 일상적 스트레스(Daily hassles)이다.(강옥순, 2006).

이에 본 연구에서는 Abidin(1990)이 개발한 PSI를 배인숙(1993)이 변안한 것을 바탕으로 아동 및 부모 특성 관련 스트레스로 구분하여 측정할 점수를 말한다.

II. 이론적 배경

이 장에서는 본 연구의 대상이 제주지역에 거주하는 유아를 둔 어머니를 대상으로 유아의 사회적 능력, 자존감, 양육효능감, 양육스트레스에 대하여 기술한다.

1. 유아의 사회적 능력

가. 유아의 사회적 능력 정의

사회적 능력(Social Competence)이란 사회적 특성의 광범위한 영역을 말하는 것으로 어느 시대, 어느 곳에서나 사용될 수 있는 보편적인 것이 아니라 그 사회에 깊이 자리 잡고 있는 근본 가치를 반영하는 것으로 학자들마다 다른 견해를 취하고 있는 개념이다(한은규, 2004). 또한 인간이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능력을 뜻하며, 사회적인 측면이 강조된 개념으로서 자신이 소속된 사회에서 적절한 기술을 사용하여 사회적인 목표를 달성하는 능력(Ford, 1982)으로 인식되고 있다. 사회적 능력은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 발달하면서 사회적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수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성인과 마찬가지로 유아에게 있어서도 사회적 적응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양은호, 2012).

사회적 환경변화에 따라 지적 발달에 치우친 조기교육 및 선행학습과 자녀수의 감소에 따른 양육자와의 상호작용 기회 증가 등으로 유아들의 성장발달은 과거에 비해 인지·학습적으로 빠른 성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타인을 배려하고 양보하며 협동하는 등 타인과 사회적 관계를 맺는 능력과 자신의 욕구를 조절하고 정서를 통제하는 능력은 점차 부족해지고 있으며, 이러한 사회적 환경의 변화에 따라 유아의 사회적 능력에 대한 관심도 고조되고 있다.

Hess(1981)에 의하면, 사회적 능력은 6세 이전에 형성되기 시작하여 초등학교 시기가 끝날 때쯤 사회에 대한 기본개념, 태도, 가치가 성립되어 간다고 하였다. 따라서 유아기에 성취한 사회적 능력은 생의 초기뿐만 아니라 이후 전 생애에 걸쳐 영향을 미치며 발달 단계에 따라 아동 초기의 애착, 부모의 양육행동, 그리고 이후의 사회적 적응과 깊은 관련성이 있으며 이 시기에 나타나는 사회적 능력의 질은

후기 학교생활에서의 사회적·학습적 능력을 정확하게 예측해 준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Waters, Garber, Gornal, & Vaughn, 1983; Zigler & Trikett, 1978).

사회적 능력에 대한 개념은 사회적인 맥락의 변화와 문화마다 다양하게 나타나는 바람직한 기준 및 가치로 인해 서로 다른 정의가 내려지기도 하지만, 사회적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상호작용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향으로 협의되고 있다(Dodge, 1991). 다양한 사회적 능력에 대한 접근방식은 크게 보면 환경 적응적 측면에서의 동물 행동학적 접근, 인성 구조적 측면에서의 접근, 그리고 사회적 상호작용 측면에서의 접근을 들 수 있다(박수현, 2005; 이태형, 2000; Foster & Ritch, 1979; Perry & Bussey, 1984; O'Mally, 1997). 먼저 사회적 능력은 환경에 접합한 행동을 나타내는 적응으로 보는 동물행동학적 접근은 각 환경마다 지니고 있는 개별적으로 다양한 상황들로 인해 인간은 생존을 위해서 그 상황에 적절한 행동을 형성해 가며 동시에 환경에 적응하는 능력을 발달시켜 나간다는 관점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White(1979)는 사회적 능력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사회적으로 수용될 수 있는 방법으로 물질적 그리고 정서적 자원을 얻어 효율적으로 환경에 적응하는 능력이라고 하였다.

다음으로 사회적 능력에 대한 정의에서 인성 구조적 측면을 살펴보면, 사회적 능력이란 다양한 구성인자로 형성된 인성 구조 중에서 긍정적인 속성을 포함하는 특성으로 보았다. 이러한 관점에서 Schaefer(1965)은 애정, 외향성, 접근성 등을 긍정적 특성으로 보았으며 적대감, 복종, 내향성, 회피성 등을 부정적 특성으로 분류하였다. 또한, Kohn 과 Roseman(1972)은 긍정적인 속성으로 관심, 호기심, 단호함 등을, 부정적인 속성으로는 관심의 결여, 기회로부터의 회피를 보여주는 정도로 유능성을 분류하였다. Baumrind(1973)는 긍정적인 도구로 사회적 책임성, 독립성, 성취지향성, 활력성 등을 보았으며, 유아는 사회적으로 우수한 인간이 되기 위해서 이러한 능력을 갖춰야 한다고 하였다(임은정, 2011).

이외에도 사회적 상호작용적 측면에서의 사회적 능력에 대한 정의를 살펴보면, 사회적 능력을 타인과의 효과적이고 만족스러운 상호작용을 하는 능력으로 정의한 O'Mally(1997)의 관점에서 살펴볼 수 있다. 사회적 상호작용적 측면에서 바라보는 사회적 능력은 타인의 역할수용 능력과 상황에 적합한 기술을 보이며 다양한 행동 목록을 갖추는 개인의 내적인 다양한 상호작용 기술능력 등이 포함된다. 또한 사회적 상호작용의 측면 중 또래관계에 초점을 두고 사회적으로 능력이 있는 아동은 자

신이 원하는 목표 성취에 필요한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했으며(Perry & Bussey, 1984), 사회적 능력은 인간 간의 상호작용을 얼마나 잘 주도하며 타인의 사회적 표현에 어떻게 반응 하는가 그리고 상호 호혜적 상호작용을 방해할 수 있는 부정적 행동을 얼마나 억제하는가 하는 능력이 포함된다(Merrell, 1999).

또한 Waters와 Sroufe(1983)에 의하면 사회적 능력은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또래의 기회를 부당하게 제한하지 않으며, 자신의 행동·정서·인지를 조절할 수 있는 능력으로 정의하였는데, 이는 사회적 능력을 다른 사람과 상호작용하고 협력하는 능력으로 제한하기 보다는 타인과의 관계형성에 있어 얼마만큼 자신의 행동과 표현, 행동문제들을 통제할 수 있는가에 초점을 두고 있다. 유아가 나타나는 행동문제들은 가정이나 교육기관, 사회 환경에서 생활하는 가운데 유발될 수 있는 행동적, 심리적 부적응의 결과로 부적합한 행동적, 정서적 반응으로 정의되고 있는데(Kauffman, 2001), 이러한 행동문제는 반사회적 행동, 부적응 행동과 연관되어 유아의 긍정적인 사회적 능력향상을 돕기 위해서는 반드시 갖추어야 할 행동적, 정서적 조절능력이라고 볼 수 있다. Achenbach 와 Edelbrock(1983)에 의하면, 유아의 행동문제는 어떻게 표출되느냐에 따라 외현적 행동문제와 내재적 행동문제로 구분될 수 있다고 하였는데 광범위한 범위의 행동문제로 공격적 행동, 과잉행동, 외현적 행동문제와 소극적 행동범위의 위축행동, 불안, 우울 등의 심리적인 문제를 보이는 내재적 행동문제로 구분하였다.

사회적 능력에 대한 국내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사회적 능력은 대개 사회성, 사회적 능력, 사회적 기술, 사회적 행동, 사회적 유능성 또는 또래 유능성이란 용어로 불리어져 왔다(민정원, 2001; 박성연, 도현심, 1993) 그리고 유능한 사회구성원으로 살아가는데 필요한 적응능력으로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바탕으로 자신과 타인에 대한 정체감을 확립, 유지하며 자신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획득하는 능력으로 개념화되었다(최경순, 홍계옥, 1996). 이러한 연구들에서 볼 수 있듯이 유아의 사회적 능력에 대한 개념이 아직은 하나로 통합되지 않았으나 최근 들어 사회적 능력에 대한 주제로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지면서 자신이 속한 다양한 관계맥락에서 사회적, 정서적으로 적절한 행동을 하는 것으로 유아의 사회적 능력은 정의 내려지고 있다(권연희, 2002; 한민경, 2003).

이상에서 볼 수 있듯이 사회적 능력에 관한 정의나 접근방법이 학자에 따라 다르고 개념 또한 다양하지만 이를 종합해 보면 사회적 능력은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 성인

이나 또래와 만족스럽고 긍정적인 관계를 맺고 유지하는 적응력으로서 사회적 태도, 사회적 기술, 행동문제 및 정서조절 능력을 포함하는 종합적인 의미로 볼 수 있다(임은정, 2011). 결론적으로 사회적 능력은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시작하고, 다른 아동의 행동에 반응하고, 긍정적 상호작용을 억제하는 부정적 행동표현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능력(도현심, 1994)과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능력이란 사회적으로 적절하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다른 사람과 상호작용을 유지하는 행동의 적응능력을 의미한다. 즉, 사회적 활동이나 친구와의 관계에 적극적인 참여, 대인관계에서의 적응도, 집단을 잘 이끌어 나가며 집단구성원에게 인기가 있는 행동을 의미한다.

나. 사회적 능력을 촉진하는 요인

1) 가족

유아의 사회적 환경 체계에서 가장 직접적이고 중요한 사회관계망은 가족이다. 유아의 사회적 능력은 유아의 초기 사회적 경험, 즉, 부모나 형제 자매와의 경험에 영향을 받는다(정영숙, 1992; 최경순, 1993). 부모의 양육 태도가 합리적이고 일관되며 신뢰롭고 애정적일수록, 형제, 자매로부터 높은 사회적 지지를 경험 할수록(최용주, 1993), 형제, 자매와의 관계가 친밀하다고 지각 할수록(전경란, 1990) 유아의 사회적 능력은 높이 평가되고 있다.

이것은 사회적 능력이 부모나 형제, 자매 등 가족 구성원과의 온정적이고 관용적이며 정서적인 애착 경험을 통해 발달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가족 구성원과의 정서적 애착, 신뢰감 형성이 이후 타인과 안정적인 유대를 형성하고 원만한 관계에 기초가 됨을 강조하는 것이다. 좋은 의사소통과 따뜻함 뿐 만 아니라 고도의 애정어린 돌봄과 고도의 통제의 결합으로 특징지어지는 유아기의 권위 있는 양육 방식은 높은 자신감과 사회적 능력과 관련이 있다. 또한, 유아는 형제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중요한 사회적 기술을 습득하게 된다. 형제간의 권위적, 방어적, 경쟁적 또는 우호적 관계의 특질은 가정 밖에서의 다른 유아 및 대인관계의 기초가 되며, 이러한 형제간의 상호작용을 통한 다양한 경험은 유아의 사회적 능력에 영향을 준다.

2) 또래

유아교육 기관에 들어가면서 유아는 점차 가족이외의 성인과 또래와의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면서 자신의 세계를 넓힌다. 유아는 기관에서 자신과는 다른 배경을 가진 친구들을 만나고 그들과 상호작용을 하면서 사회적 기술을 발달시킨다. 유치원의 사회적 능력과 또래 수용은 일단 형성이 되면 초등학교, 그 이후까지 유지된다(Ladd, 1983).

최근 영아기와 걸음마기로부터 벗어날 무렵 또래가 하는 중요한 역할이 더욱 더 분명해지고 있다(Parker & Asher, 1987). 만약 유아가 또래로부터 거부당하거나 또래로부터 사회적 요령을 배움에 있어 방해받으면 사회적 정보에 있어서 결정적인 정보를 잃는다. 또래들과의 만족스러운 관계는 매우 다양한 사회적·지적 자극, 도전, 학습을 위한 환경을 제공한다. 이렇듯 생의 초기 5~6년 동안의 또래와의 경험이 남아있는 미래의 모든 관계의 기초를 제공한다.

3) 교사

교사는 유아의 사회적 능력 발달을 지원함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교사는 유아를 개인적으로 지도할 때 따뜻하고 지지적인 분위기에서 유아에게 제안하기가 쉽다. 이러한 개인적인 초점과 상호작용은 유아로 하여금 교사의 제안을 듣고 심각하게 반응하는 능력을 증진시킨다. 교사가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환경을 배열하는 방식은 사회적 기술을 향상시키고 새로운 사회적 지식과 이해를 얻을 수 있는 기회에 영향을 미친다. 또한 유아의 사회적 능력을 발달시키기 위한 맥락으로써 놀이에 중요성을 가지고 유아를 놀이에 참여시키며, 의미 있는 집단 활동에 참여 시키는 다양한 활동이 모두 유아의 사회적 능력을 향상시키게 한다.

4) 물리적 환경

물리적 환경에서의 작은 변화들이 유아들 사이의 사회적 상호작용의 질과 양을 높여준다. Clarke-Stewart, Gruber 와 Fitzgerald(1994)는 유아교육 기관의 물리적 환경은 유아의 인지적 학습과 사회적 학습을 위한 기회에 중요한 영향을 미침을 발견하였으며, 좋은 물리적 환경은 낮은 또래들과 긍정적으로 상호작용을 하는 유아들의 사회적 능력을 향상시켜 주고 유아들 간에 덜 공격적인 상호작용을 하게 하였다는 연구 결과를 제시하였다. 환경은 사회적 상호작용에 정서적, 심리적 반응을 자

극하는 것과 유아들에게 개방된 사회적 상호작용의 범위를 제한함으로써 영향을 미친다(Olds & Olds, 1989). 물리적 환경의 시설과 자료의 배움을 통하여 유아의 사회적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환경의 다양함은 사회적 기술의 전체 범위를 길러 주는데 필수적이다. 물리적 환경은 학급에서 발생하는 또래집단의 크기와 또래 상호작용의 유형에 영향을 미친다(Oden & Ramsey, 1993).

다. 유아의 사회적 능력과 관련된 선행연구

선행연구로 유아의 사회적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어머니의 관련변인은 어머니의 연령, 교육수준, 취업유무, 가구소득이 있으며, 유아 관련 요인은 유아의 출생순위, 성별, 연령이 있다. 유아들 둘러싼 일차적 환경인 가정환경은 유아의 사회적 능력의 기초를 형성하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그 영향의 주요주체인 부모의 양육행동에 관련된 연구가 다수 수행되었다. 김선미(1994)는 가정의 가구소득에 따른 유아의 사회적 능력에 대한 연구에서 사회경제적 수준이 높은 가정의 유아보다 낮은 경우보다 사회적 능력의 점수가 더 높다고 하였으며, 김경희와 황혜정(1998)은 저소득층의 유아가 중류층의 유아보다 사회 정서적 문제가 더 많다고 보고하였다. 이는 높은 소득은 자녀에게 풍부한 경험을 제공하게 되므로 가정의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자녀의 사회적 능력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이원영(1983)은 어머니의 교육수준에 관한 연구에서 어머니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정서적 발달을 강조하는 대신 사회성을 소홀히 여기는 경향이 있고, 거부통제의 정도가 낮고 자율성을 부여한다고 했으며, 교육정도가 낮을수록 지적발달을 우선적 교육목표로 삼는다고 하였다. 우수정(2005)과 최정미(2002)의 유아의 사회적 능력과 관련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부모로부터 받은 사랑과 보호, 권위의 경험은 관찰되고 모방되어지면서 유아의 가치관으로 내면화되기 때문에 부모의 양육태도는 유아의 사회적 능력 발달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사회적으로 유능한 유아의 부모는 유아 스스로의 독립적인 결정을 존중해주며, 부모가 정한 것에 대해 매우 확고한 태도를 보였으며, 자녀의 요구에 대해 유아와 부모간의 의사소통이 분명하였다. 취업여부에 따른 유아의 사회적 능력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안현숙(1999)은 비취업모의 자녀가 취업모의 자녀보다 사회적 능력이 높다고 하였으며, 안재연(1992)은 어머니의 직업에 대한 선호도가 높을 경우 아동은 지도력과 부모에 대한

애정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자율지향적인 양육태도는 유아의 사회적 능력 및 사회성 발달의 향상에 영향을 주었다고 보고한 연구들(노명희, 박상희, 2002; 이외영, 2002)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으며, 이는 부모의 가치관, 태도 및 행동이 유아의 발달을 좌우하는 핵심요인이며, 유아의 사회적 능력의 발달은 부모와의 상호작용 정도에 의해 좌우된다고 할 수 있다.

2. 자존감

가. 자존감의 정의 및 특징

Rosenberg(1995)는 자존감을 개인이 판단하는 혹은 자신 스스로에 대해 의식적으로 유지하는 평가라고 정의 하였고, Coopersmith(1967)는 개인이 자신에 대해 형성하고 유지하는 평가로, 긍정적·부정적 태도로 표현되며, 자신을 유능하고 중요하며 성공적이고 가치 있게 여기는 정도라고 정의 하였다. Branden(1994)은 자존감이란 우리 삶에 필수적인 것이며 적절하게 필요한 경험이고, 우리 자신에게 생각하게 하는 능력이 있으며 평생동안 만나게 되는 기본적인 역경에 맞서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자신에 대한 믿음이고, 필요한 것과 원하는 것을 주장할 자격이 있으며 자신의 노력으로 얻은 결과를 즐길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또한 스스로 행복해질 수 있다고 믿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 이길자(1997)는 인간의 내면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것으로 자기를 인정하고 의식하며 정당하기 위하여 의식적·무의식적으로 노력하는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이며 에너지라고 자존감을 정의하였다.

자존감은 개인의 사고, 가치관, 자신의 생활경험에 대한 생각과 결정, 행동에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Belsky & Vondra, 1985).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자기 자신의 모든 생활을 가치 있고 보람 있다고 생각하면서 자신 있게 행동하기 때문에 원만한 사회생활을 영위함과 아울러 진취적이고 활력 있는 삶을 전개하게 하는 반면,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자신이 쓸모없고 무가치하며 약하다고 생각하여 스스로를 확대하고 열등감과 심한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하였다(Bachman & O'Malley, 1983). 또한,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관점으로 인해 타인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며, 타인과 부정적인 상호작용을 한다고 하였다(한영옥, 김문혜, 2003).

Tony Humphreys(2006)는 자존감이란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스스로 ‘걸러낸 자아’이다. 우리는 자신이 속한 사회체제나 어떤 관계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진짜 자아를 가질 수 있게끔 스스로 딱딱한 갑옷을 만들어 입는다. 이러한 갑옷 사이로 사람들에게 드러내 보여 주는 진짜 자아의 크기가 바로 자존감이다. 따라서 자아 가치를 드러내지 못하도록 하는 위협이 클수록 자존감은 약해지고 방어행동은 커진다. 이러한 의미에서 자존감은 남들에게 들어냈을 때 위협받는 진짜 자아, 즉, 자아 가치를 숨기고 가려주는 역할은 한다고 말한다.

Paul Martin(2006)은 행복을 증진시키는 진정한 건강한 자존감은 자신에 대한 현실적인 판단에 기초를 둔다. 이는 자신의 진짜 모습, 결점도 있는 그대로 숨기지 않고 만족하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가치를 과대평가하고 자신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을 굽히지 않는다. 공허한 망상, 허영, 나르시즘으로 변할 수 있다. Fish Joel & Magee Susan(2008)은 자존감은 자신에 대해 어떻게 느끼고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관한 자신의 마음이다. 자존감은 우리의 자신감(나는 얼마나 능력이 있는가), 정체성(나는 이 세상에서 어떤 존재인가), 그리고 육체와 자아상(나는 어떤 모습인가)을 모두 포함한다. Mia Tornblom(2007)은 자존감은 자신만이 지닌 특별한 가치에 대한 인식이다. 자존감이란 자신의 가치를 직접 깨닫고, 실제로 자신을 자신답게 느끼는 것을 의미 한다고 설명한다.

신민섭, 박선영(2007)은 자존감이란 스스로에 대한 평가를 말한다. 진정한 의미의 자존감은 자신의 한계와 약점을 숨기거나 포장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것이다. 우형진(2007)은 자존감이란 ‘자신에 대한 존중’을 의미하는 것으로,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 자존감이 높은 사람에 비해 반사회적 행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한다. 정철희(2008)는 자존감이란 ‘능력이나 조건에 상관없이 자기 스스로를 가치 있다고 여기며 소중히 생각하는 것’이다. 스스로에 대해 얼마나 긍정적으로 생각하느냐에 따라 자존감은 커지기도 하고 작아지기도 한다. 자존감은 남이 아니라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제일 중요하다. 잠재된 능력을 최대한으로 끌어내려면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과 태도를 가져야 한다고 설명한다.

보통 자존감은 2세 부터 7세 사이에 부모의 양육태도를 통해 형성되고 이후에는 학교생활이나 또래관계나 사회생활을 통해서 조금씩 교정되어 간다. 자존감이 높고 낮음은 어려운 일이 닥쳐도 이것을 잘 견뎌내고 성공으로 이끄는 사람과 모든 것을 다 가진 듯해도 쉽게 포기하는 사람으로 설명될 수 있다. 신민섭, 박선영(2007)은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자신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다른 사람과 어울릴 때도 균형 있는 감각을 유지하지 못하고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불안해하며 다른 사람의 사소한 말이나 행동을 예민하게 받아들인다. 또한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는 상황을 피하려 하고,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의견을 잘 표현하지 못하고 억압한다. 이런 이유로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대인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부담스럽고 불편하게 느낀다는 것이다.

Gary R. Collins(2000)는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 다음과 같다고 정리한다. 첫째, 고립되었다고 또 사랑스럽지 않다고 생각한다. 둘째, 너무 약해 자신의 결점을 극복할 수 없다고 생각하며 의욕이 없으며 자신을 방어할 수 없다. 셋째, 화를 잘 내지만 다른 사람들을 화나게 하거나 자신에게 주의를 돌리는 것을 두려워한다. 넷째, 다른 사람과 어울리기가 어렵다. 다섯째, 복종적이고 의존적인 편이며 또 쉽게 감정이 상한다. 여섯째, 호기심과 참의성이 부족하다. 일곱째, 되도록 자신을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내지 않으려 한다고 설명한다.

민수진(2003)은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자신에 대해 좋게 느끼고 품위, 정직, 강인함이 있다. 좋은 인간관계와 적당한 사랑의 행동은 자기의 가치를 잘 알고 있는 사람에게서 나온다. 자신을 사랑하고 가치 있게 여길 수 있으며 경우에 맞게 사람을 대할 수 있는 것이다. 확고한 자기 가치감을 가지는 것은 더욱 충만한 사람이 되고, 건강하며,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인간관계를 획득하고, 유지하며 바람직하고 영향력이 있으며, 책임감이 있는 사람이 되는 길이다. 성실, 정직, 책임감, 정열, 사랑, 그리고 능력 모두는 자존감이 높은 사람으로부터 나온다. 자기 가치감이 강한 사람일수록 다른 사람에게 덜 요구한다. 다른 사람에게 덜 요구한다는 것은 결국 더 신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을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그들은 덜 두려워한다. 다른 사람들과 더 오래 함께 있을수록 그들은 더 많이 알게 된다, 다른 사람을 더 많이 알수록 그들과의 유대와 연결이 더 확고해진다고 설명한다.

강철희(2008)는 자존감이 높으면 자신을 중요하고 가치 있는 사람으로 생각하여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도 자신감이 생긴다. 뿐만 아니라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자신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 강하므로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에 외적인 동기가 없어도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뛰어든다. 또한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다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고 비교해서도 안 되는 자신만의 가치를 높이 평가한다. 잠재된 능력은 최대한으로 끌어내려면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과 태도를 가져야 한다고 설명한다.

따라서 위에서 언급한 선행 연구들의 결과에 따르면 낮은 자존감은 전반적으로 대인관계를 힘들게 하고, 높은 의존성을 가지고 있다. 또한 스스로 자신을 고립시키며, 자신에 대한 전반적인 부정적 가치 판단과 충동성 및 사회에 부적응하게 하는 등 부정적인 요인들에 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높은 자존감은 전반적으로 대인관계에 도움을 주며 창조성을 높이고, 자신에게 공격해 오는 공격자에 대한 힘이며, 자신에 대한 긍정적 가치 판단 및 사회에 대한 적응 능력에 도움을 주는 등 긍정적인 요인들에 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나. 자존감 형성요인

자존감의 영향 요인을 두 가지로 아래와 같이 정리하였다. 첫째 자존감 영향 요인은 사회적 비교 정보이다. 최경숙(2006)은 자존감의 영향 요인을 사회적 비교 정보로 이야기 하고 있다. 5~6세 어린 유아들도 다른 유아들 보다 더 잘 한다 또는 더 못한다는 사회적 비교 정보를 접하게 됨으로써 자신에 대한 유능 정도나 매력 정도를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다. 사회적 비교 정보는 연령과 함께 증가하며, 특히, 경쟁과 개인적 성취가 강조되는 문화에서는 자존감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김순혜, 김정원(2009)은 친구가 많아서, 운동을 잘해서, 착해서, 잘생겼다는 것들과 관련된 것들이 아이의 자존감 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말한다. 그런데 이 요소가 자존감에 영향을 주는 정도는 아이마다 다르며, 공부는 잘하는데 친구가 없어서, 또 어떤 아이는 운동은 잘 하는데 공부를 못해서 자존감이 낮을 수 있다고 설명한다.

둘째, 자존감의 영향 요인으로 주 양육자인 부모와의 관계를 들 수 있다. Tony Humphreys(2006)는 부모는 가족의 리더이다. 부모 개인이 자존감 수준이 가족구성원 개개인의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인 행복수준을 결정짓는다. 자존감이 중간 이하로 낮은 부모들은 아이들에게도 자신과 비슷한 수준의 자존감을 물려주게 된다고 말한다. Branden(1994)은 자존감 형성에 있어서 부모가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할 때 건강한 자존감을 형성하는 데에 큰 지장을 받는다고 하였다. 첫째, ‘아이가 뭔가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전해지는 경우이다. 둘째, ‘납득할 수 없는’ 감정을 표현했다고 야단을 치는 경우이다. 셋째, 아이를 놀리거나 비웃는 경우이다. 넷째, 아이들의 생각이나 감정은 별로 중요하지 않고 가치가 없다고 여기는 태도가 전해지는

경우이다. 다섯째, 창피나 벌로써 아이를 통제하려고 하는 경우이다. 여섯째, 아이를 과잉보호 하여 자만심을 키워서 정상적인 학습을 할 수 없게 만드는 경우이다. 일곱째, 아이를 어떤 규칙 없이 키워서 자신을 일관성 있게 유지시켜줄 만한 정해진 규범이 없거나 정상적인 성장을 억누르는 규칙으로 기르는 경우이다. 즉, 모순되고, 혼란스럽고, 토론의 여지를 주지 않고, 억압적인 규칙으로 기르는 경우이다. 여덟째, 아이가 가지고 있는 성품을 부정하고 아이에게 자신의 마음과 인격에 의심을 품도록 기르는 경우이다. 아홉째, 분명한 사실들을 허구에 취급하여 오히려 아이가 가지고 있는 합리성을 혼란시키는 경우이다. 열 번째, 아이에게 물리적인 위협을 가하여 위협을 느끼게 하고, 아이의 마음속에 심한 공포감을 주입시키는 경우이다. 열한 번째, 아이를 성적 대상으로 대하는 경우이다. 열두 번째, 천성적으로 아이들을 선하지 않고 죄가 있는 존재이며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가르치는 경우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무석(2013)은 자존감은 대개 유년기에 부모-자식 간의 관계에서 형성된다. 부모만이 무조건적으로 자식을 인정하고 받아줄 수 있기 때문이다. 무조건적 수용이란 말 그대로 ‘조건 없이,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주는 경험이다.’ 자식이 무능력하거나 장애가 있어도 부모는 자식을 있는 그대로 사랑한다. 이런 경험을 반복하면서 아이는 자기가 한 인간으로 사랑받는 존재라는 자존감을 갖게 된다고 설명한다. 생의 초기에 형성된 유아 자신에 대한 부모의 관계방식은 따라서 일관성을 필요로 함을 알 수 있다. 일관성이 없는 부모-자식 간의 관계 방식은 자녀에게 혼란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여 누구나 자신에 대한 이미지를 지니게 되는 것이다.

김유숙(2003)은 이렇게 되고 싶다는 이상적 자기상이 강한 사람은 현재의 자신에게 만족하지 못하고 항상 이상적 자기상과 비교하여 자신을 볼 것이다. 그러나 참된 자아란 자신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자신을 고정된 실체로 보지 않으며 변화하는 존재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상적 자기상이 강한 사람은 충분한 인정이 없는 부모-자녀 관계를 경험한 경우이거나 너무 엄격한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이상적 자기상을 높게 평가하는 사람이라 보인다. 이 또한 부모-자식의 관계 속에서 그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자존감은 사회적 정보와 주 양육자인 부모와의 관계에서 영향을 받게 됨을 알 수 있다. 자존감은 스스로에 대한 자기 평가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이 타인, 즉, 사회라고 하는 타(他), 부모라고 하는 타인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 높아지기도

하고 낮아지기도 한다. 또한 유아기에 결정이 되며 그 결정된 평가가 평생의 생활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다. 최초 아동 양육자인 어머니의 자존감

자존감이 낮은 어머니는 낮은 자존감으로 인해 부정적인 심리적 편견을 가지고 자녀와 상호작용을 하게 되는 것이다(남소현, 김영희, 2000). 어머니의 낮은 자존감과 높은 우울·불안 등의 부정적인 정서는 유아의 우울증이나 불안장애를 발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였다(박진아, 정문자, 2007; 이유진, 박영, 2005). 어머니의 우울, 자존감, 심리적 안정감이 아동의 문제행동을 예측하는지에 대한 한국 집단과 미국 집단의 비교 연구에서 한국의 어머니의 경우 자존감과 문제행동이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미국 어머니의 경우 자존감 높을수록 아동의 우울·불안, 주의집중문제, 비행, 공격성, 정서불안정, 내면화 문제행동 등이 낮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인다고 하였다(한영옥, 김문혜, 2003). 어머니의 정서와 양육방식에 대해 문제행동 유아 집단과 일반 유아 집단을 비교한 연구에서는 일반유아의 어머니들보다 문제행동을 보이는 유아의 어머니들이 현저하게 자존감이 낮고, 우울·불안이 높으며, 과잉 보호적 양육방식을 더 많이 보인다고 보고되었다(곽소현, 김순옥, 2006).

인간의 성장과 발달에 영향을 주는 많은 환경 중에 어머니는 최초로 경험하는 중요한 환경으로 유아는 태어나면서 어머니와 상호작용을 통해 전반적인 발달의 기초를 형성하는데, 신경증적 특성, 성격, 우울·불안, 자존감 등 어머니 개인요인은 유아의 행동에 많은 영향을 준다고 보고되었다(김연, 2007; 왕해경, 2011). 자존감이 높은 어머니는 성장자녀에게 배우고 따라야 할 긍정적인 모델이 되고(Mussen, 1990), 자녀를 사랑하고 아동의 의견을 존중하며, 어머니 스스로 조화로운 부부관계를 유지하기 때문에 자녀가 가족관계에 적응하고 사회적 발달을 이루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심희옥, 1998). 반면, 자존감이 낮은 어머니는 자녀를 가치 있는 존재나 독립된 한 인격체로 간주하지 않는 경향이 있고(이현, 2001), 자녀를 멀리하며 무관심하고 냉담하게 자녀를 다룬다고 하였다(Mussen, Cpnger & Kangan, 1984). 어머니가 자존감이 낮을수록 자녀를 객관적으로 보지 못하여 부정적인 상호작용을 하게 되는데 이때 사용하는 공격적 언어, 무관심, 비난 등의 부정적 메시지는 자녀에게 낮은 자존감, 적개심, 좌절감을 유발하고 문제행동을 발생시킨다고 하였다

(Salovey & Mayer, 1996).

어머니의 자존감은 수용, 관심, 참여, 친밀성, 애정, 온정성 등의 양육방식과 정적 상관관계가 있고(Bachman, 1970), 구속적·거부적 행동, 무관심, 비난, 억압, 통제와 위협 등의 양육방식과 부적상관이 있다고 보고되었다(Litovsky & Dus다, 1985). 자존감이 높은 어머니일수록 양육 유능감을 높게 지각하고, 자녀에 대하여 수용적, 애정적이고 친밀한 관계를 갖는다고 하였다(권미란, 2007; 김정연, 1993; 노진아, 이숙, 2003; 윤현선, 1983; 허영림, 윤혜진, 2002). 즉, 어머니가 자존감이 높을수록 민주적이며 일관성 있고 애정적이며 합리적 양육을 하고(공경혜, 2004; 조금남, 2009), 자존감이 낮은 어머니보다 어머니의 역할을 능동적으로 수행한다는 것이다(Parke, 1981).

자존감이 높은 어머니들의 사용하는 민주적, 수용적, 일관적, 합리적인 양육방식은 어머니가 자녀의 수준에서 과업을 수행하도록 자율성을 격려하고, 이성적으로 자녀가 순종하도록 이끌어 주며, 자녀의 의사와 느낌을 묻고 의사표현을 격려하는 행동통제를 포함하는데(이민영, 김관웅, 2011; Calzada & Eyberg, 2002), 어머니가 행동통제를 많이 할수록 자녀가 행동통제를 자기에 대한 애정과 관심으로 생각하여(Barber, Bean & Crane, 2006) 비행, 공격성 등의 외현화 문제행동이 감소되고(김희화, 2003), 두려움, 위축 등의 내면화 문제행동도 낮게 나타난다고 하였다(민정임, 2011).

반면, 자존감이 낮은 어머니는 권위주의적이고 통제적 양육을 하고(공경혜, 2004; 노진아, 이숙, 2003), 과 보호적이고 지시·통제적이며 거부·적대적인 양육을 한다고 하였다(조금남, 2009). 즉, 어머니의 자존감이 낮을수록 통제적 양육을 하는데(김연, 2007; 오미영, 2010), 통제적 양육방식을 사용하는 어머니는 자녀에게 훈육이 필요할 때 자녀의 행동에 자기표현의 제한, 감정 불인정, 비난, 죄책감 유발, 애정철회, 불안정한 감정기복 등의 심리통제를 사용한다고 하였다(Calzada & eyberg, 2002). 어머니가 심리통제를 많이 사용할수록 자녀의 과잉행동과 공격성 등 외현화 문제행동이 높게 나타나고(권기정, 전영숙, 2010), 불안이나 우울, 의존성 등과 같은 내면화 문제행동을 초래한다고 보고되었다(박성연 외, 2008; 정운주, 2004; Barber & Harmon, 2002).

라. 자존감과 관련된 선행연구

Srone과 Neale(1984)은 낮은 자존감과 빈약한 사회적 지지를 받는 사람들이 스트레스가 있을 때 더 많은 신체적, 심리적 문제를 겪는다고 했다. 즉, 문제해결 상황이

스트레스의 지각을 표현한다는 논리 하에 여기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내적 변인으로
서 자존감을 고려하게 되었다(이경민, 2001).

Kliewer 와 Sandler(1992)는 스트레스와 증상과의 관계에서 자존감의 역할을 연구
하였는데 연구결과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자존감이 낮은 집단은 심리적 증상이 높은
반면에 자존감이 높은 집단은 심리적 증상이 비교적 높아지지 않음으로 자존감이 스
트레스 상황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Kaplan(1983)은 스트레스는
직접적으로 자존감을 위협하거나 사회적 관계를 방해하고 자존감의 강화를 저지하는
것으로써 자존감을 감소시킨다고 하였다.

선행연구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자존감이 스트레스와 관련이 있는 요소임을 알 수 있다.
결과적으로 어머니의 자존감이 자신뿐만 아니라 자녀를 양육하는데 중요한 요소가
됨을 예측해 볼 수 있는 것이다. 부모는 자신뿐만 아니라 자녀의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
스스로의 태도 및 생활양식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어린 시절 건강한 자존감을 형성
하는데 방해를 받으면 성인이 되어 그러한 상처와 낮은 자존감을 회복하려는 방법이
필요한데 많은 인내와 시간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자존감이 양육스
트레스에 노출되었을 때 어떠한 조절효과가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3. 양육효능감

가. 양육효능감의 정의

양육행동을 이해하려는 시도로서 환경적 요인 이외에 부모의 인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양육효능감에 대한 연구들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부모의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아동의 발달에 기여하는 것으로 알려진 양육효능감은 Bandura(1986)의
자아효능감(Self- efficacy)의 개념에서 나온 것으로 자아효능감을 양육의 차원에서
적용시킨 것이라 볼 수 있다. Bandura(1977, 1982, 1997)는 자아 효능감이란 목표를
산출하기 위해 필요한 행동과정 조직능력 실행능력에 대한 자기 자신의 신념이라고
하였다. 또한, 그는 효능감이란 많은 목표를 수행하기 위해 인지적이고 정서적이며
행동적인 기술을 조직하고 효과적으로 배합해야 하는 생산적 능력이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효능감이 높은 사람은 실제 능력에 차이가 없더라도 효능감이 낮은 사람보다

더 의미 있게 일을 성공적으로 수행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효능감이 개인의 능력이 상으로 수행을 잘 예언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최형성, 2001). 다시 말하면 문제 상황에 직면할 때 자기 효능감이 높으면 그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자신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반면, 자기효능감이 낮으면 문제 상황을 회피하거나 포기하는 특징을 보인다. 따라서 인지된 자기효능감이 과제 수행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커서 개인이 추구하는 행위의 방향과 강도 뿐 아니라 개인이 사고양식과 정서 반응에도 영향을 미친다.

Dorsey, Klein, Forehand 와 Family Health Project Research Group(1999)은 양육효능감이란 아동의 바람직한 발달과 관련된 행동을 수행하는 능력에 대한 부모 자신의 믿음이다. 이들은 연구를 통해 양육효능감이 높은 부모는 아동의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양육행동을 많이 보여주며, 동시에 아동의 사회적·심리적 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이들은 이러한 측면에서 양육 효능감은 부모와 아동의 심리적 안녕과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라고 설명하였다(문태형, 2002, 재인용).

Scheel과 Rieckman(1998)는 양육효능감이란 부모의 과업을 완수하고 아동의 긍정적인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능력에 대한 부모 자신의 지각이라고 하였다. Teti 와 Gelfand(1991)는 양육효능감이란 효율적으로 양육의 과업을 완수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부모의 믿음이라고 언급하였고, 양육효능감에 대한 많은 문헌적 고찰을 통해 양육효능감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Coleman 과 Karraker(1997)는 양육효능감이란 부모가 자신을 양육과 관련된 역할을 수행하는 능력을 가진 사람으로 지각하는 정도라고 정의하였다(문혁준, 1999, 재인용). Bandura(1997)는 인간의 행동은 개인의 인지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의 상호작용에 의해 변화하는데, 이러한 행동을 조절하는 자기체계를 자기효능감이라고 했다. 자기효능감은 개인의 사고양식과 정서반응에 영향을 미치면서 자신이 바라는 결과를 얻어 내기 위해 요구되는 행동을 수행할 수 있다고 믿는 자기기대인 것이다. 보통 두 가지 형태의 기대가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데, 어떤 행동이 어떤 결과를 나타낸다고 믿는 결과 기대와 개인의 문제 상황에서 문제를 처리하기 위한 행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믿는 효능기대이다. 때문에 자기효능감이 강할수록 문제 상황에서 해결능력이 증가하게 되는 반면, 자신의 능력에 대한 회의감을 가진 개인은 문제 상황에서 노력을 게을리 하거나 포기하려는 경향을 갖게 되는 것이다(신숙재, 1997)

자녀양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환경적 요인뿐만 아니라 부모의 인지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게 되었으며 양육효능감이 거론되기 시작하였고, Bandura의 자기효능감을 자녀양육에 적용시킨 것이 양육효능감이다. Johnston과 Mash(1989)는 자녀를 양육하며 자녀 양육과 연관된 어려움이나 문제에 대해 잘 해결 할 수 있다는 부모로서의 자신의 능력에 대한 지각, 즉, 부모로서 능력이 있다고 느끼는 정도, 자녀의 문제를 다룰 수 있는 능력, 양육에 대한 익숙함의 정도라고 정의 하였다.

또한, Luster & Kain(1987)은 양육효능감은 부모로서 자신의 능력에 대한 지각이며, 자녀의 발달적 결과에 대해 부모 자신이 어느 정도로 영향을 줄 수 있는가에 대한 기대와 판단으로서 부모역할에 대한 적응을 돕고, 자녀양육과 연관되는 문제나 어려움을 잘 관리해 나가도록 동기를 제공하며 양육행동의 근원으로서 중요한 작용을 하는 인지적 특성이라고 했다. 안지영(2001)은 양육효능감은 부모로서 자신의 수행능력에 대한 기대와 판단으로서, 부모역할에 적응을 돕고 자녀 양육과 연관되는 문제나 어려움을 잘 관리해 나가도록 동기를 주며, 양육행동의 근원으로 중요한 작용을 하는 인지적 특성으로 정의 하였다.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에서 어머니의 우울과 자녀의 까다로운 기질, 사회적지원 등이 어머니에게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했다.

Cutrona & Troutman, 1986. 이러한 영향들은 사회적 지원이 많을수록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을 높게 한 반면, 자녀의 기질이 까다로울수록 어머니의 효능감을 낮게 하는 등의 영향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양육효능감은 부모-자녀간의 상호작용에 있어서도 영향을 준다. 양육효능감이 높을수록 자녀에게 수용적이고 자녀와의 상호작용을 더 원활하게 이끌 수 있게 한다. 이렇게 다양한 요인들을 통해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은 영향을 받게 되는데, 양육경험뿐만 아니라 양육경험이 많은 주변 사람이 부모를 정서적으로 지지하고, 칭찬 할 때도 이러한 경험이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을 강화시키게 됨으로써 어머니의 양육기술과 행동이 개선된다고 하였다 (Crockenberg, 1986: 신숙재, 1997 재인용).

이러한 양육효능감은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아동의 발달에도 중요한 영향을 주는 것이다. 즉,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이 높을수록 아동의 사회적 심리적 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게 됨으로써, 아동의 심리적 안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다(최형성, 2002). 최형성, 정옥분(2001)은 양육효능감을 전반적인 양육능력, 건강하게 양육하는 능력, 의사소통 능력, 학습지도 능력, 훈육능력

의 다섯 가지로 구분하였다. 전반적인 양육능력은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 양육을 제공하는 능력이나 지식, 행동을 말하고, 건강하게 양육하는 능력은 자녀의 심신건강과 관련된 것을 말한다. 의사소통 능력은 자녀에 대한 이해 및 수용과 자녀와의 의사소통을 말한다. 학습지도 능력과 훈육 능력은 각각 자녀의 지적 학습과 자녀를 통제하고 훈육하는 능력에 대한 것이다.

나. 양육효능감과 관련된 선행연구

양육효능감은 부모-자녀 간에 일어나는 행동을 예측해 주며, 부모의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아동의 발달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들에 의해 주목받기 시작했으며, 최근에는 인지적 측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를 주제로 한 연구들이 점차 증가되고 있다(최형성, 2001; Coleman & Karraker, 1998).

Bandure(1997)에 의해 처음으로 사용된 양육효능감이라는 개념은 연구자에 의해 다양하게 정의되었다. 즉,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데 효율적으로 양육할 수 있고, 자녀양육과 관련된 어려움이나 문제에 대해 잘 해결할 수 있다는 부모로서 자신이 지각하는 능력을 양육효능감(Johnston & Mash, 1989; Teti & Gelfand, 1991)으로 정의하기도 하고, 자녀의 발달적 결과에 대해 부모 자신이 어느 정도로 영향을 줄 수 있는가에 대한 기대로 설명하기도 한다(Luster & Kain, 1987). 또한 Dorsey 와 동료들(1999)은 양육효능감을 아동의 바람직한 발달과 관련된 행동을 수행하는 능력에 대한 부모 자신의 믿음으로 정의하였다. 이들은 양육효능감이 높은 부모는 아동의 발달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양육행동을 많이 보여주며, 동시에 아동의 심리 사회적 적응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이들은 이러한 측면에서 양육효능감은 부모와 아동의 심리적 안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임을 강조하였다(최형성, 2001, 재인용).

이와 관련된 국외 연구들에서 나타난 결과들을 살펴보면, 양육효능감이 높은 부모는 바람직한 양육행동과 부모와 자녀간의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궁극적으로 아동의 신체적, 정서적, 심리적 발달을 긍정적으로 이끌었다(Dorsey, et al, 1999; Rodrique, Geffken, Clark, Hunt & Fishel, 1994). 이와 대조적으로 양육효능감이 낮은 부모는 부적절한 양육행동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아동의 긍정적인 발달을 방해하였다(Coleman & Karraker, 1998; Dorsey, et al., 1999; Mondell & Tyler, 1981).

국내 연구의 경우 전반적인 양육효능감 및 훈육능력과 관련된 양육효능감은 아동의 사회적 능력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된다. 즉, 양육효능감을 높게 지각하는 어머니일수록 아동의 사회적 능력이 높게 나타났다(문태형, 2002). 이러한 결과는 어머니의 자기 효능감과 아동의 실질적인 사회적 능력간의 밀접한 관련성을 발견한 연구결과들(김희진, 1993; 우희정, 이숙, 1994)에서도 발견된다. 또한, 자녀 교육에 대한 부모의 가치체계가 자녀와의 상호적인 관계에 영향을 주어 아동의 적응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홍계옥, 2001)를 통해서도 확인된다.

이와 같이 양육효능감은 부모-자녀간의 관계에 있어서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부모의 자아 형성뿐만 아니라 양육과 관련된 요인들의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중재하며, 궁극적으로 아동의 심리·사회적 적응과 인지 능력 등, 아동의 전반적인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최근 많은 관심을 끌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양육효능감과 유아의 사회적 능력과의 관련성 또는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대한 연구의 상호작용 효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4. 양육스트레스

가. 양육스트레스의 정의

스트레스란 환경의 요구가 지나쳐서 개인의 능력 한계를 벗어날 때 개인과 환경의 불균형, 부적합 상태를 가리키는 것이다(조혜승, 1996). 즉, 인간은 환경적 요구에 직면하게 되면 개인은 그에 대응할 적응능력과 정도를 평가한 다음 그 환경적 요구를 위협적으로 지각하며, 대처전략이 부적절하다고 여기면 스트레스 상황 하에 놓이게 된다고 보았다(김춘자, 2008). 스트레스는 이혼, 가족원의 죽음, 질병, 사고 등과 같은 중요한 생활사건이 스트레스의 원인이 되기도 하지만, 중요한 생활사건을 일반적으로 빈번하게 경험하는 것이 아니므로 오히려 매일이 생활에서 경험하는 일상적 스트레스의 축적이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백영숙, 2007). 일상적 스트레스란 개인과 환경과의 일상적 교류의 결과로 경험케 되는 성급함, 당황, 좌절감 등으로 범주화할 수 있는데, Kanner(1981)의 연구에서도 일상적 스트레스는 몇 개가 동시 발생적으로 나타나 복합적인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단순한 하나의 생

활사건보다도 더욱 위협적이 되기 쉽다고 보았다(한미현, 유안진, 1995). 또한, Lazarus & Folkman(1984)은 주요 생활사건 보다는 일상적인 사건으로 인해 누적된 스트레스가 개인의 심리적 건강과 복지감을 더 잘 예측한다고 주장하였다.

Webster-Stratton(1988)은 스트레스를 부모-자녀 관계의 잠재적 방해요소로 보고 부모의 양육행동에 영향을 주는 누적된 스트레스원에 대한 양육스트레스의 개념적 모델을 구축하였고, Abidin(1992)의 ‘스트레스 모델’(Stress Model)에 의하면 양육스트레스에 의한 지각은 양육 행동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변인으로 보고된다(Abidin, 1992; Crnic & Greenberg, 1990). Abidin(1992)은 Lazarus 와 Folkman(1984)의 스트레스 이론에 근거하여 양육스트레스를 부모역할 수행에서 일상적으로 지각하는 스트레스라고 개념화하였다.

이러한 양육스트레스는 자녀의 현재 상황 및 장래, 혹은 자녀양육의 방법과 결과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함축하는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상태를 의미한다고 하였다(이정순, 2001; 하태화, 2009). 이러한 양육스트레스를 구성하는 주요한 요소는 일상적 스트레스(Daily stress)이다. 부모로서 역할을 수행하거나 자녀와의 상호작용에서 생기는 일상적 스트레스는 주요 생활사건의 경험보다 더 주요한 스트레스의 근원으로서 알려지고 있다. 즉, 부모들은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되는데, 자녀를 돌보는 일과 관련된 신체적 요구, 부부관계에서의 긴장, 정서적 부담, 사회적·경제적인 기회비용과 제한이 증가함으로써 나타난다(Belsky, 1984).

일상적 스트레스는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를 이해하는데 특히 중요하다(Crnic et al, 1990). 또한 일상적 스트레스뿐만 아니라 부모역할 수행과정에서 경험하는 스트레스도 양육스트레스로 볼 수 있다. 이는 생활주기를 통해 성장하는 발달과정에서 경험하는 스트레스로 자녀를 양육하면서 부모로서의 역할에 대한 부담감도 양육스트레스라고 정의하였다(하태화, 2009).

양육스트레스는 개인과 가족이 시간이 흐름에 따라 발달, 변화해 가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경험하게 되는 가족 체계내의 긴장과 압력으로서 자녀 양육으로 인해 부모가 인지하는 곤란 정도나 부담감이다(고성혜, 1994). 양육스트레스는 하나하나 자체로서는 큰 영향을 주지 못하더라도, 이것이 누적되고 만성적으로 될 때에는 부모에게 스트레스의 근원으로 작용하여 부모에게나 부모-자녀 관계와 나아가서는 자녀의 발달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양육스트레스를 느끼게 되면, 부모의 심리적인 복지감은 물론, 자녀에 대한 태도, 자녀와의 상호작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

에, 부모로서의 적응에 부정적인 결과를 나타낸다고 보고하고 있다.(Crnic & Booth, 1991; Patterson, 1983; Crnic & Acevedo, 1995; 안지영, 2001 재인용).

나.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주는 요인

Abidin(1995)는 부모들이 자녀를 양육할 때 자녀의 특성에 따라 다르게 행동하고 부모역할을 수행하는 부모 자신의 능력과 부모·유아의 기질적인 성향에 따라 양육스트레스를 다르게 지각한다고 보면서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아동 특성(Child Characteristics)과 부모 특성(Parent Characteristics)로 나누어 설명했다(이임숙, 2006 재인용). 아동의 특성(Child Characteristics)은 6개의 하위척도로 구성하였다. 첫째, 적응성(Adaptability)은 아동의 상황의 변화를 얼마나 받아들이고 조절해나가는가를 설명하고, 둘째, 수용성(Acceptability)은 아동의 부모의 기대를 얼마나 잘 수용하여 표현하는가와 관련된다. 부모의 기대에 부합되는 행동을 할수록 부모는 스트레스를 덜 받게 된다. 셋째, 요구성(Demandingness)은 아동이 부모에게 끊임없이 관심과 서비스를 요구하여 부모를 지치게 하거나 반항적이고 공격적인 행동을 나타내어 부모에게 직접 스트레스를 느끼게 하는 특성이다. 넷째, 기분(Mood)은 아동의 감정적인 성향과 이로 인해 나타나는 아동의 행동과 관련된다. 다섯째, 활동성(Distractability/Hyperactivity)은 예민하고 산만한 행동과 같은 아동의 과도한 행동을 설명한다. 여섯째, 부모강화(Reinforces Parent)는 부모와 자녀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아동이 부모로부터 얼마나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 낼 수 있는가를 설명한다. 아동이 부모와 상호작용하면서 부모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 내지 못할 경우 부모는 양육에 대한 관심과 기쁨을 느끼기 어렵다.

부모의 특성(Parent Characteristics)은 7개의 하위척도로 구성하였다. 첫째, 우울(Depression)은 부모의 침체적인 정서적 상태로 인해 양육 능력이 손상된 정도와 이로 인한 부모의 죄책감 등을 나타낸다. 둘째, 애착(Attachment)은 부모 역할 수행에 대해 얼마나 애정과 동기를 가지고 있는가를 설명한다. 셋째, 역할 제한(Role restriction)은 자녀 양육에 대한 부모 역할이 자신의 개인시간 활용이나 다른 일을 할 때 미치는 영향을 설명한다. 넷째, 유능감(Sense of competence)은 부모 역할 수행에 대한 자신감 또는 자신을 얼마나 유능하게 인식하는지와 관련되어진다. 다섯째, 사회적 고립(Social isolation)은 부모 역할 수행 시 주변의 지지정도가 어떠한

지, 부모가 사회적으로 얼마나 고립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여섯째, 배우자와의 관계(Relationship With spouse)는 자녀 양육 시 배우자의 신체적·정신적 지지 정도와 자녀로 인해 발생하는 부부관계의 갈등을 말한다. 일곱째, 부모의 건강상태(Parent health)이다. 자녀를 돌보는데 필요한 에너지의 원천이 되므로 어머니의 건강상태는 자녀 양육에서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이다.

Abidin의 양육스트레스와 관련된 많은 이론들이 국내의 양육스트레스와 관련된 연구에 많이 사용되어지고 있다. 또한, 신숙재(1997)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부모 효능감이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하고자, Abidin의 연구와 서혜영(1992)연구를 근거로 양육스트레스의 요인을 분석하여, 자녀의 기질, 자녀와의 관계, 학습기대로 구분하였다. 즉, 자녀의 기질과 관련된 스트레스로 어머니가 자녀를 양육하면서 자녀의 까다로운 기질과 다루기 어려운 행동으로 인해 느끼는 스트레스를 의미하고, 자녀와의 관계로 인한 스트레스는 일상생활에서 부모가 자녀와의 상호작용이 만족스럽지 못하거나 자녀와의 사이가 가깝지 않다고 지각하는 등 자녀와의 일상적인 관계에서 느끼는 스트레스를 의미한다. 학습기대와 관련된 스트레스는 자녀가 부모의 기대보다 공부를 못하고 스스로 자기 일을 하지 않아서 느끼는 스트레스를 의미한다.

다. 양육스트레스와 양육행동

기존의 많은 연구들은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사회인구학적 변인이나 아동 및 부모특성에 초점을 두었으며, 인지적 측면에 대한 연구는 활발하게 진행되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몇몇 학자들은 양육행동의 인지적 측면일 뿐만 아니라 선행변인으로서의 양육스트레스와 관련된 주제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다(Abidin, 1992; Belsky, 1984; Crnic & Greeberg, 1990).

부모의 일상적인 스트레스는 양육행동과 밀접한 관계를 보여, 부모가 자녀양육에 대해 높은 스트레스를 경험할수록 아동에게 바람직하지 못한 양육행동이 나타나며, 양육행동에 직접·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Abidin, 1990; Belsky, 1984). Abidin(1992)은 양육스트레스 수준과 역기능적 양육행동 간의 관계는 단순히 선형적인 관계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면서 매우 낮은 양육스트레스도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즉, 어머니가 양육스트레스를 받으면 어머니의 역기능적인 양육행동이 증가된다. 이러한 국외 연구결과는 국내의 경우에도 비슷한 양상으로 나타나, 어머니가 스트

레스를 많이 지각할수록 자녀에 대해 강압적이고 거부적인 양육행동을 많이 나타내는 것으로 보고되었다(김명희, 1999; 박성연, 전춘애, 한세영, 1996; 신숙재, 1997; 안지영, 2001; 유우영, 이숙, 1998; 이현주, 1999).

이상의 연구들을 종합해 보면, 어머니가 대체로 양육스트레스를 지각하게 되면, 부모의 심리적 복지감은 물론 자녀에 대한 태도, 자녀와의 상호작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부모로서의 적응에 부정적 결과를 초래하기 쉽다. 부모가 양육스트레스를 높게 지각할수록 자녀를 부정적으로 대하게 되며, 이는 부모-자녀 관계의 질을 손상시키고, 나아가 아동의 행동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다.

라. 양육스트레스와 관련된 선행연구

부모로서의 유능감은 불안, 우울 등의 부정적인 정서에 영향을 받는다 (Elder, Eccelles, Ardet & Lord, 1995; Ferketich & Mercer, 1994). 즉, 이러한 부정적인 심리적 정서 상태는 개인의 자존감을 저하시키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게 하는 것으로, Dumka와 그의 동료들(1996)은 어머니의 높은 스트레스가 양육 능력에 대한 어머니들의 지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Levy-Shiff와 그의 동료들(1998)은 어머니가 일상생활에서 겪게 되는 스트레스가 어머니의 심리적 안녕감과 양육효능감 중에서도 특히 양육효능감에 더 큰 부적 영향을 미침을 보고하였고, 두금주(2002)는 불안, 스트레스, 각성, 피로, 정서 상태와 같은 생리적 상태는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Scheel과 그의 동료들(1998)은 부모가 지각하는 스트레스가 양육효능감을 예측하는 중요한 요인임을 밝혔다.

자녀를 키우면서 경험하는 양육스트레스는 어머니의 일상을 힘들게 하며 이는 어머니의 생활을 무기력하게 만든다. 이러한 무력감은 아동을 양육하는데 영향을 미쳐, 아동을 대하는 자신의 가치관에 혼란을 주게 된다는 측면에서 어머니가 지각하는 스트레스가 양육효능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고 여겨진다. 자녀 양육 시 경험하는 스트레스가 높을 때 부모는 자연스럽게 자신의 자녀양육 능력에 회의를 갖기가 쉬울 것이다. 즉, 자녀양육 상황에서 양육스트레스와 양육효능감의 관계는 충분히 예측이 가능하다.

양육스트레스와 양육효능감에 관한 국외 연구들을 살펴보면, 어머니가 자녀 양육

에 의해 겪는 스트레스는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에 부적이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Abidin, 1990; Dumka, Stoerzinger, Jackson & Roosa, 1996; Levy-Shiff, Dimitrovsky, Shulman, & Har-Even, 1998). 즉, 어머니가 자녀를 양육하는데 스트레스를 많이 경험할수록 어머니들은 자신의 양육행동에 대해 부정적으로 지각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미국 내 거주하는 Early Head Start 프로그램의 수혜자인 저소득층의 어머니와 영아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발견되어, 어머니의 특성과 관련된 요인들은 어머니의 연령, 소득수준별 양육에서 오는 스트레스는 양육효능감에 영향을 미쳤다. 또한 부모의 양육스트레스와 양육효능감 간의 관계에서 아동의 기질은 그 선행변인의 역할을 하기도 한다. 아동의 까다로운 기질로 인해 어머니는 대부분 자녀양육 시 어려움을 겪고, 결과적으로 어머니의 양육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는 아동의 까다로운 기질로 인한 스트레스가 어머니의 양육효능감과 부정적으로 관련이 있다는 연구결과를 통해 확인된다(Cutrona & Troutman, 1986). 국내 연구에서도 양육스트레스와 양육효능감 간의 관계에서 양육스트레스는 양육효능감에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력을 예측해 주며, 양육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어머니들이 지각하는 양육효능감은 낮은 수준이다(신숙재, 1997; 안지영, 2001; 최형성, 2001).

결과적으로 스트레스는 사회경제적 환경 여러 가지 가정문제들이 양육스트레스에 일조하게 된다. 이러한 양육스트레스는 자녀의 행동품행 문제, 사회적능력 등과 된다. 만약 부모가 심하게 양육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좋은 부모로서의 역할 수행뿐만 아니라 양육효능감도 떨어지게 된다. 또한 자녀가 보다 많은 행동상의 문제를 나타내게 되면 그 자체가 부모에게 스트레스를 주고 결국 다시 부모역할의 어려움을 초래하게 되어 자녀의 사회적능력을 악화시키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에 어머니가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 스트레스 조절이나 관리는 매우 중요하다 할 수 있다.

5. 유아의 사회적 능력, 어머니의 자존감, 양육효능감, 양육스트레스의 관계

가. 양육스트레스와 유아의 사회적 능력과의 관계

양육스트레스는 유아의 정서, 행동발달뿐만 아니라 부모와 자녀의 관계 형성에도 중요한 영향을 갖는데 그 중요성이 큰 만큼 부모가 되는 일은 힘들과 어려우며 부모는

자녀를 양육하는 동안 여러 가지 스트레스에 직면하게 된다. 기존의 많은 연구들은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사회 인구학적 변인이나 유아 및 부모의 특성에 초점을 두었다. 그러나 최근 부모의 양육행동에 미치는 변인으로 부모가 지각하는 스트레스가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다.(Crinic & Greenbe, 1990).

사회적 능력은 기본적으로 양육자와 상호작용에 의해 발달되며 유아의 다양한 사회적 행동양상은 부모로부터 배우게 된다. 또한, 자녀양육에서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스트레스가 자녀에게 대한 부모의 부정적인 지각과 부모의 명령, 비난, 처벌과 같은 강압적인 행동과 연관되며 이는 특히 유아의 부적응 행동과 사회적 발달에 영향을 준다 (김혜진, 2003; 이정희, 2000). 문혜련(1999)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따른 유아의 사회적 능력을 알아보는데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낮은 집단에서는 높은 집단의 유아들보다 사회적 능력이 높게 나타났다. 즉, 스트레스가 어머니의 심리적 안녕에 부정적 영향을 줌으로써 어머니의 우울, 불안 등을 증가시키고 이러한 우울, 불안은 어머니의 부적절한 양육행동과 관련된다는 것이다. 자녀를 양육하는데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수록 부모는 바람직한 양육행동을 나타내지 못하며 바람직하지 못한 양육행동은 유아의 사회적 능력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있다는 연구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양육스트레스는 유아의 사회적 능력에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어머니가 양육스트레스를 많이 느낄수록 거부적이거나 권위주의적인 양육을 하게 됨으로써 자녀의 사회적 능력은 낮아지고 자녀의 문제행동이 증가한다 (김명희, 1998; 김현미, 2004; 유우영, 1998).

이와 같이 선행연구들을 종합해 보면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취학 전 아동의 사회적 능력의 관계에서 어머니가 합리적인 지도를 하고 한계를 정해주면서 일관성 있게 행동할 때 긍정적인 사회적 능력이 높게 나타난다고 보고되고 있다.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애정적이고 자율적인 가정에서 성장한 유아들은 능동적이고, 독립적이며, 사회적 능력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유아의 사회적 능력과 중요한 관계가 있음을 시사해 주고 있다. 반면에 어머니가 지각하는 스트레스는 유아의 사회적 능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되고 있다.

이에 양육스트레스는 부모-자녀관계가 지속되는 한 끊임없이 계속될 것이며 일상생활과도 분리될 수 없고 자녀양육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또한 어머니의 양육행동은 자녀의 일생을 결정하는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자녀의 전인적 발달 즉, 유아의 사회성 발달 및 사회적 능력을 위해서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는 그 만큼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다.

나. 자존감과 양육스트레스의 관계

Lazarus와 Folkman(1984)에 의하면 어머니가 자녀양육에서 느끼는 스트레스의 정도는 어머니 자신의 정의적·인지적 특성에 의해 주도적으로 지각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어머니 자신의 특성과 어머니가 처한 생활환경 및 각종 생활스트레스 등이 상호작용하여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자존감은 스트레스와 관련되어 심리적 기능에 대한 스트레스 효과를 중재하는 것처럼 보인다. 자존감의 수준에 따라 스트레스가 미치는 영향이 달라져 낮은 자존감을 지닌 사람은 높은 자존감을 지닌 사람보다 부정적인 사건으로부터 더 많은 심리적인 어려움을 경험한다. 반면 높은 자존감을 지닌 사람은 심리적인 어려움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어 스트레스 사건에 덜 취약하고 회복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높은 자존감을 지닌 사람은 인생에 대한 만족감, 행복감, 자신의 생활에 대한 자신감과 적절한 정도의 모험을 감행하기도 하며 보다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대처를 하고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으로 이를 해결하려는 높은 동기를 지닌다고 한다(양귀화, 2001).

다. 양육효능감과 양육스트레스와의 관계

자녀 양육과정에서 느끼는 스트레스는 어머니의 무기력을 증가시키며 이러한 감정은 아동의 양육에 영향을 주면서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가 여러 연구를 통해 보고되고 있다(조영숙, 2007). 또한, 유아를 대상으로 한 유우영, 최진아, 이숙(1998)의 연구에서 보면 양육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자녀 양육에 대한 만족감과 상호작용과정에서 부정적인 양육태도를 보인다고 하였으며, 안지영(2001) 또한 영아를 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양육효능감은 양육행동과 유의한 관계를 나타낸다고 보았으며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부정적인 양육행동을 많이 하게 되고 양육효능감이 높을수록 긍정적인 양육행동을 한다고 하였다. 이외에도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은 양육스트레스와 양육행동간의 관계를 매개하는 것으로 보았다. 이승은과 서현(2007)은 부모의 양육효능감과 양육스트레스를 유아의 감성지능과 관계를 연구하여 유의한 관계를 보았으며, 김현미와 도현심(2004)은 양육스트레스와 양육효능감과 유아의 사회적 능력간의 관계에서 어머니가 많은 스트레스를 경험할수록 자신의 양육 능력에 대한 자신감을 상실하여 아동의 발달에 부정적인 발달을 초래함을 보여주고 있다.

라. 양육효능감과 유아의 사회적 능력과의 관계

양육효능감이 높은 부모는 바람직한 양육행동과 부모와 자녀 간의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궁극적으로 아동의 신체적, 정서적, 심리적 발달을 긍정적으로 이끌었다(Dorsey et al., 1999). 이와 대조적으로 양육효능감이 낮은 부모는 부적절한 양육행동을 나타낼 뿐 아니라 아동의 긍정적인 발달을 방해하였다(Coleman & Karraker, 1997; Dorsey et al., 1999).

국내 연구의 경우 전반적인 양육효능감 및 훈육능력과 관련된 양육효능감은 아동의 사회적 능력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된다. 즉, 양육효능감을 높게 지각하는 어머니일수록 아동의 사회적 능력이 높게 나타났다(문태형, 2002). 이러한 결과는 어머니의 자기효능감과 아동의 실제적인 사회적 능력 간의 밀접한 관련성을 발견한 전인옥, 이경옥(1999)연구에서도 발견된다. 또한 자녀 교육에 대한 부모의 가치체계가 자녀와의 상호적인 관계에 영향을 주어 아동의 적응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를 통해서도 확인된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여러 국내외 연구들을 통해서 부모의 양육스트레스, 자존감, 양육효능감, 사회적 능력은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문태형, 2002; 문혜련, 1999; 박해미, 1994; Abidin, 1992; Bogenschneider, Small & Tsay, 1997; Bronfenbrenner, 1986; Patterson, 1983). 이러한 연구결과에 주목하여 본 연구에서는 양육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있어 어머니들의 양육스트레스 대처기술을 강화하고 부모역할의 만족도를 높이며 자녀양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기초자료로 제공해 나가고자 양육스트레스에 대한 조절효과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Ⅲ. 연구방법 및 절차

본 연구에서의 연구대상 선정, 연구절차, 자료를 수집하는데 사용한 연구도구, 자료의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어머니의 자존감, 양육효능감과 유아의 사회적능력 간의 관계에서 양육스트레스의 조절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도내 어린이집에 재원하고 있는 유아(만3~5세)를 둔 어머니와 유아의 담임교사를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다. 만3~5세아의 재원비율 및 국공립, 사회복지법인시설(도 전체 어린이집 579개소 중 102개소) 중심으로 대상시설을 선정하고 재원 유아 수의 30%~50%를 각 어린이집별로 설문지를 할당하였다. 선정된 어린이집에서는 해당 학급(만3~5세아 학급)을 교사 재량으로 선정한 후 해당 유아의 어머니에게 설문을 배부 및 회수하고 회수된 설문에 교사해당 부분을 체크하도록 하였다.

설문지는 미회수 및 불성실한 대답 등으로 폐기될 표본을 고려하여 1,300부(102개시설, 아동수 4,424명의 30%)를 배포하였다. 총 수거된 982부(회수율 75.5%) 중 불성실한 응답을 한 설문지 45부를 제외한 937부를 코딩하였다. 연구대상 어머니의 연령은 20~29세가 37명(3.9%), 30~39세 640명(68.4%), 40~49세 240명(25.6%), 50세 이상 3명(0.3%)로 나타났으며 30~39세가 가장 많았다. 연구대상 어머니의 일반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표 III -1. 어머니의 연령별 특성 (N=937)

어머니의 특성	구분	빈도	백분율(%)
연령	20~29세	37	3.9
	30~39세	640	68.4
	40~49세	240	25.6
	50세 ~	3	0.3
	무응답	17	1.8
	합 계	937	100

어머니의 학력 부분은 중졸이하 19명(2.0%) 고졸 258명(27.5%), 대졸 607명(64.8%) 대학원 재학이상 36명(3.9%)로 대졸이상의 비중이 64.8%를 차지하고 있어 학력수준은 높은 편으로 분석되었다. 연구대상 어머니의 학력별 특성은 표 III -2와 같다.

표 III -2. 어머니의 학력별 특성 (N=937)

어머니의 특성	구분	빈도	백분율(%)
모의 학력	중졸 이하	19	2.0
	고 졸	258	27.5
	대 졸	607	64.8
	대학원 재학 이상	36	3.9
	무응답	17	1.8
	합 계	937	100

어머니의 직업은 전문직 127명(13.6%), 사무직 206명(22.0%), 판매 및 서비스직 202명(21.6%), 생산 근로직 및 단순노무직 96(10.2%), 주부 283명(30.1%)로 주부의 비중이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사무직, 판매 및 서비스직 순으로 분석되었다. 연구대상 어머니의 직업별 특성은 표 III -3과 같다.

표 III -3. 어머니의 직업별 특성 (N=937)

어머니의 특성	구분	빈도	백분율(%)
모의 직업	전문직	127	13.6
	사무직	206	22.0
	판매 및 서비스직	202	21.6
	생산근로직 및 단순노무직	96	10.2
	주 부	283	30.1
	무응답	23	2.5
	합 계	937	100

어머니의 자녀 수는 1명, 130명(13.9%), 2명, 536명(57.2%), 3명, 229명(24.4%), 4명, 25명(2.7%)순으로 나타나 자녀는 2명~3명 비중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연구대상 어머니의 자녀수별 특성은 표 III -4와 같다.

표 III -4. 연구대상 어머니의 자녀수별 특성

(N=937)

어머니의 특성	구분	빈도	백분율(%)
총 자녀수	1명	130	13.9
	2명	536	57.2
	3명	229	24.4
	4명	25	2.7
	5명	9	1.0
	9명	1	0.1
	무응답	7	0.7
	합 계	937	100

연구대상 가구의 월평균 수입은 100만원 미만 14명(1.5%), 100~200만원 미만 86명(9.1%), 200~300만원 미만 232명(24.8%), 300~400만원 미만 246명(26.3%), 400만원 이상 334명(35.6%)으로 나타나 400만원 이상이 가장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연구대상 가구의 월평균 수입은 표 III -5와 같다.

표 III -5. 연구대상 가구의 평균수입

(N=937)

특성	구분	빈도	백분율(%)
가구의 평균수입	100만원 미만	14	1.5
	100~200만원 미만	86	9.1
	200~300만원 미만	232	24.8
	300~400만원 미만	246	26.3
	400만원 이상	334	35.6
	무응답	25	2.7
	합 계	937	100

2. 연구절차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절차를 거쳐 수행되었다.

가. 전문가 검증

본 연구의 측정도구들은 선행연구를 기초로 구성하였으며 구성된 도구들이 목적에 맞는 문항인지를 평가하기 위해 전문가 검증을 실시하였다. 어린이집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현장경력 5년 이상인 원장 5명에게 질문지를 보내 의견수렴을 하는 과정을 통해 적절성 검증을 받았다.

나. 예비조사

본 연구에서 사용될 질문지와 문항이해도와 응답 시 문제점 등을 알아보기 위해 2015. 1월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예비조사는 서귀포시청에 근무하고 있는 유아(만 3~5세)를 둔 어머니 10명에게 질문지를 배부하였다. 문항 이해 어려움이나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아 본 연구에서 사용할 최종 질문지로 확정하였다.

다. 본조사

만3~5세아의 재원비율 및 국공립, 민간, 사회복지법인시설 중심으로 대상시설을 선정하고 재원 유아 수의 30% ~ 50%를 각 어린이집별로 설문지를 할당하였다.

표 III - 6. 자료의 수집일정

일 정	내 용
2014. 12월	- 본조사 : 관내 어린이집 원장(5명) - 예비조사 : 서귀포시청 직원 중 유아를 둔 직원(10명)
2015. 1월	- 본조사 실시 - 설문 1,300부 배부
2015. 2월	- 설문회수(982부) - 불성실한 설문 폐기(45부)
2015. 3월	- 설문지 코딩작업 실시(937부)

선정된 어린이집에서는 해당 학급을 교사 재량으로 선정한 후 해당 유아의 어머니에게 설문을 배부 및 회수하고 회수된 설문에 교사해당 부분을 체크하도록 하였다.

설문지는 미회수 및 불성실한 대답 등으로 폐기될 표본을 고려하여 1,300부를 배포하였다. 총 수거된 982부(회수율 75.5%) 중 불성실한 응답을 한 설문지 45부를 제외한 937부를 코딩하였다. 자료 수집 일정은 표 III - 6과 같다.

3. 연구모형

어머니의 자존감 및 양육효능감과 유아의 사회적능력 간의 관계에서 양육스트레스의 조절효과를 분석하기 위한 연구모형은 그림 III-1~2와 같다.

그림 III-1. 어머니의 자존감이 유아의 사회적 능력과의 관계에서 양육스트레스 조절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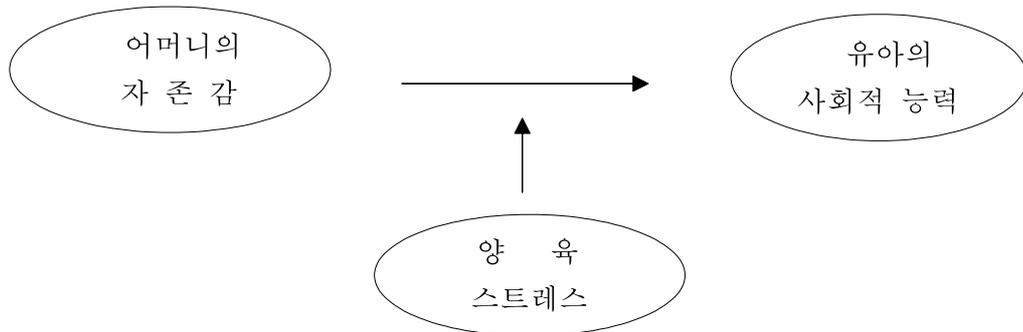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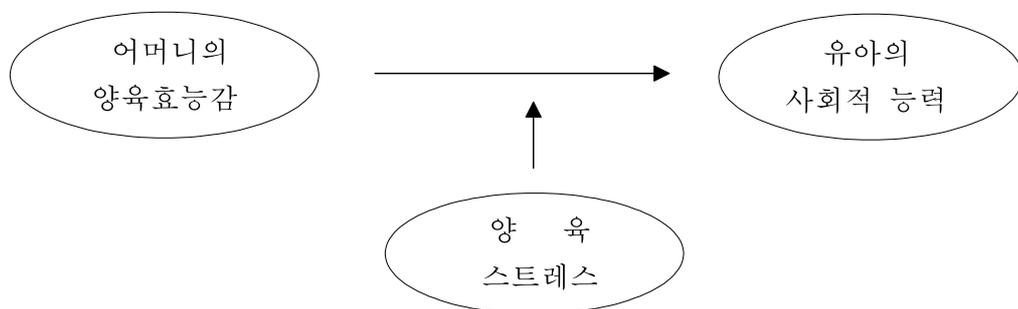


그림 III-2.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이 유아의 사회적 능력과의 관계에서 양육스트레스 조절효과



4. 측정도구

본 연구의 조사도구는 어머니의 자존감, 양육효능감, 유아의 사회적 능력 그리고 양육스트레스 척도로 구성되었다. 어머니의 자존감, 양육효능감, 양육스트레스는 어머니에 의해, 유아의 사회적 능력은 교사에 의해 평가되었다. 각 척도별 보고자는 표 III -7과 같다.

표 III -7. 각 척도별 보고자

척도	어머니 보고	교사 보고
자존감	○	
양육효능감	○	
양육스트레스	○	
유아의 사회적능력		○

가. 자존감

어머니의 자존감을 측정하기 위해 Rosenberg(1965)가 개발한 자존감 척도 (self-Esteem Questionnaire)를 전병제(1974)가 번안한 척도를 사용한 김연(2007)의 질문지를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이 검사는 어머니가 자기 자신에 대하여 평가하는 자아상을 자존감의 반영으로 보고, 개인이 지각하고 있는 자신에 대한 느낌과 평가의 척도와 자기수용의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고안되었다. 이 척도는 총 10문항으로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의 1점에서 ‘매우 그렇다’의 4점까지 4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5개의 긍정적 항목(1, 2, 4, 6, 7)과 5개의 부정적 항목(3, 5, 8, 9, 10)으로 구성된다. 점수가 높을수록 자신에 대한 가치감이 높다고 볼 수 있다. 어머니의 자존감 문항에 대한 신뢰도를 보면 Cronbach’s α 는 .83으로 나타났다. 자존감에 대한 문항구성은 표 III - 8과 같다.

표 III - 8. 자존감의 문항 및 신뢰도

구분	문항번호	문항수	Cronbach’s α
자존감	1, 2, (3), 4, (5), 6, 7, (8), (9), (10)	10	.83

주. ()는 부정형 질문으로 역산한 문항을 표시한 것임.

나. 양육효능감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을 측정하기 위해 Floyd, Gilliom, 그리고 Costigan(1998)의 'Perceived Parenting Competence'를 안지영(2000)이 번안, 수정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원래 이 척도는 학령기 자녀용으로 개발된 것을 안지영(2000)이 우리나라 문화에 적용 가능한 문항을 고려하여 부모 역할에 대한 자신감을 측정하는 양육 자신감(이하, 부모역할에 대한 자신감) 요인(Parenting Confidence Scale)(7문항)과 부모 역할에서 아이를 다루기 어려워 하는 양육 어려움(이하, 부모역할에 대한 두려움) 요인(Under Control Scale)(8문항)등 2개 요인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은 '거의 그렇지 않다'는 1점, '그렇지 않은 편이다'는 2점, '대체로 그런 편이다'는 3점, 그리고 '매우 그렇다'는 4점으로 평가하는 Likert 4점 척도를 사용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각 요인의 특성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문항에 대한 신뢰도를 보면 Cronbach's α 는 .85으로 나타났다. 양육효능감에 대한 문항구성은 표 III - 9와 같다.

표 III - 9. 양육효능감 문항 및 신뢰도

구분	문항번호	문항수	Cronbach's α
양 육 효능감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5	.85

주. ()는 부정형 질문으로 역산한 문항을 표시한 것임.

다. 양육스트레스

Abidin(1990)에 의해 개발된 PSI(Parenting Stress Index)는 부모-자녀간의 상호작용의 영향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원 질문지의 구성은 아동의 특성에 관한 47문항, 부모의 특성에 관한 54문항, 부모가 지각한 중요한 생활 사건의 경험 유무와 내용을 묻는 생활 스트레스에 관한 19문항으로 총 120문항으로 이루어 졌다. 질문지의 총 점수를 합하여 부모의 양육스트레스에 대한 임상적인 해석을 하게 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스트레스를 많이 느끼는 것을 의미한다. 그

러나 현실적으로 임상장면에서 다른 검사들과 더불어 이 문항에 모두 응답을 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너무 많이 소비됨에 따라 36문항의 PSI-SF이 Abidin 에 의해 개발되었다(Abidin, 1995).

본 연구에서 사용한 부모 양육 스트레스 측정도구는 Abidin(1990)이 개발한 양육스트레스 검사(PSI: Parenting Stress Index)를 배인숙(1993)이 번안한 것을 바탕으로 주요 생활 스트레스를 제외한 아동 영역 12문항, 부모영역 12문항으로 양경화(2001)가 구성한 총 24문항을 사용하였다. 아동 영역에 속하는 특징으로는 활동성, 부모강화, 기분, 수용성, 적응성 요구성의 6가지가 있으며, 부모자신의 문제와 스트레스를 느끼는 부모특성 영역에는 유능성, 애착, 우울, 배우자 관계, 사회적 고립, 건강의 7가지 영역이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각 영역을 합산하여 아동특성, 부모특성 관련 스트레스로 구분하였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에서부터 ‘매우 그렇다’ 까지 5점 척도로 이루어져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스트레스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각 영역의 문항 수, 문항 번호 및 내적 합치도 계수는 표 III - 10과 같다.

표 III - 10. 양육스트레스 문항 및 신뢰도

구분	문항번호	문항수	Cronbach's α
아동특성	1, 2, 3, 4, 5, 6, 12, 13, 14, 15, 20, 24	12	.84
부모특성	7, 8, 9, 10, 11, 16, 17, 18, 19, 21, 22, 23	12	.84
전체		24	.84

라. 유아의 사회적 능력

유아의 사회적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pease, Clark, 및 Crase(1979)의 사회적 능력척도(Iowa Social Competency Scales : Prescool form)를 윤정혜(1990), 양외점(1993), 김영지(1994)의 연구에서 번안하였던 교사용 질문지를 수정·보완하여 사용한 이정연(1999)의 교사용 질문지를 사용하였다. 본 질문지는 모두 42개의 문항으로 사회적 활동성 8문항, 안정성 7문항, 협조성 7문항, 참여 및 자율성 7문항, 사회적

규범에 의한 순응성 6문항, 지도성 7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은 5점 척도로써 ‘전혀 아니다’ 1점, ‘아니다’ 2점, ‘보통이다’ 3점, ‘그렇다’ 4점, ‘아주 그렇다’ 5점으로 1점 ~ 5점까지의 평정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점수가 높으면 유아의 사회적 능력이 높다. 본 질문지의 점수를 보면 사회적 활동성은 8~40점, 안정성은 7~35점, 협조성은 7~35점, 참여 및 자율성은 7~35점, 사회적 규범에 대한 순응성은 6~30점, 지도성은 7 ~ 35점으로 총 점수 범위는 43점 ~215점이다. 사회적 능력 척도의 하위 영역별 문항구성은 표 III - 11

표 III - 11. 사회적 능력 척도의 하위영역별 문항 및 신뢰도

구분	문항번호	문항수	Cronbach's α
사회적 활동성	1, 2, 3, 4, 5, 6, 7, 8	8	.89
안정성	1, (2), 3, (4), (5), (6), (7)	7	.76
협조성	1, 2, 3, (4), 5, 6	6	.86
참여자율성	1, 2, 3, (4), (5), 6, (7)	7	.79
순응성	1, 2, 3, 4, (5), (6)	6	.62
지도성	1, 2, 3, 4, 5, 6, 7	7	.85
전 체		42	.94

주. ()는 부정형 질문으로 역산한 문항을 표시한 것임.

5. 자료의 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18.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첫째, 연구대상의 사회 인구학적 특성과 주요변수의 기술 통계치를 살펴보기 위해 빈도분석을 시행하였다.

둘째, 독립변인인 어머니의 자존감과 종속변인인 유아의 사회적 능력, 조절변인인 양육스트레스 간의 전반적인 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상관분석을 시행하고 양육스트레스의

조절효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셋째, 독립변인인 어머니의 양육효능감과 종속변인인 유아의 사회적 능력, 조절변인인 양육스트레스 간의 전반적인 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상관분석을 시행하고 양육스트레스의 조절 효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IV. 연구결과 및 해석

유아를 둔 어머니의 자존감, 양육효능감과 유아의 사회적 능력간의 양육스트레스와의 상관관계를 먼저 살펴보고, 양육스트레스의 조절효과가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하겠다.

1. 어머니의 자존감과 유아의 사회적 능력 간 관계에서 양육스트레스의 조절효과

먼저 본 연구의 독립변인인 어머니의 자존감과 종속변인인 유아의 사회적 능력 그리고 조절변인인 양육스트레스 간의 전반적인 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이들 간의 상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의 표 IV - 1과 같다.

표 IV - 1. 어머니 자존감, 유아의 사회적 능력, 양육스트레스 간 상관관계수(r)

	어머니 자존감	사회적 능력	양육스트레스
어머니 자존감	-		
사회적 능력	.34*	-	
양육스트레스	-.52*	-.50*	-

* $p < .001$

위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어머니의 자존감과 유아의 사회적 능력 간 상관은 .34($p < .001$)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어머니의 자존감이 높아질수록 유아의 사회적 능력 수준 또한 함께 높아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한편 어머니의 자존감과 양육스트레스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적 상관(-.52, $p < .001$)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양육스트레스와 유아의 사회적 능력간의 부적 상관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50, $p < .001$).

다음으로 어머니의 자존감과 유아의 사회적 능력간의 관계에서 양육스트레스의 조절 효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의 표 IV - 2와 같다.

표 IV - 2. 유아의 사회적 능력에 대한 어머니 자존감과 양육스트레스의 회귀분석 결과

단계	독립변인	B	SE	β	t
1	어머니 자존감	.11	.03	.12	3.36 *
	양육스트레스	-.38	.03	-.43	-12.47 **
		$R=.51$	$R^2=.26$	$\Delta R^2=.26^{**}$	$F_{(2,841)}=143.58^{**}$
2	어머니 자존감	.01	.04	.02	.35
	양육스트레스	-.38	.03	-.45	-12.93 **
	자존감 × 스트레스	-.17	.05	-.14	-3.64 *
		$R=.52$	$R^2=.27$	$\Delta R^2=.01^{**}$	$F_{(3,840)}=101.79^{**}$

* $p<.05$ ** $p<.001$

위의 표 IV - 2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종속변인인 유아의 사회적 능력에 대한 어머니 자존감과 양육 스트레스의 중다회귀계수는 $R=.51$ 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유아의 사회적 능력 변량의 약 26%가 어머니의 자존감과 양육 스트레스에 의해 설명되는 것으로 나타났다($R^2=.26$).

다음으로 어머니의 자존감과 양육스트레스 상호작용 항을 추가로 투입한 결과 그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t=-3.64, p<.001$) 어머니의 자존감과 유아의 사회적 능력의 관계에서 양육스트레스의 조절효과가 확인되었다.

아래의 그림 IV - 1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자존감이 낮은 집단의 경우에는 양육스트레스의 높고 낮음에 따른 유아의 사회적 능력의 차이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반면, 자존감이 높은 집단의 경우에는 양육스트레스가 낮은 집단과 높은 집단 간 유아의 사회적 능력의 차이가 크게 벌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IV - 1. 사회적 능력에 대한 자존감과 양육스트레스의 상호작용 효과



2. 양육효능감과 유아의 사회적 능력 간 관계에서 양육스트레스의 조절효과

다음으로 본 연구의 두 번째 독립변인인 양육효능감과 종속변인인 유아의 사회적 능력, 조절변인인 양육스트레스 간의 전반적인 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이들 간의 상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의 표 IV - 3 과 같다

표 IV - 3. 양육효능감, 유아의 사회적 능력, 양육스트레스 간 상관계수(r)

	양육효능감	사회적 능력	양육스트레스
양육효능감	-		
사회적 능력	.41*	-	
양육스트레스	-.66*	-.50*	-

* $p < .001$

위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양육효능감과 유아의 사회적 능력 간의 상관은

.41($p<.001$)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이 높을수록 유아의 사회적 능력 수준 또한 함께 높아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또한 양육효능감과 양육스트레스 간의 상관은 $-.66(p<.001)$ 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양육효능감과 유아의 사회적 능력간의 관계에서 양육스트레스의 조절효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의 표 IV - 4 와 같다.

표 IV - 4. 유아의 사회적 능력에 대한 양육효능감과 양육스트레스의 회귀분석 결과

단계	독립변인	<i>B</i>	<i>SE</i>	β	<i>t</i>
1	양육효능감	.15	.04	.15	3.75 **
	양육스트레스	-.33	.03	-.40	-10.02 **
		<i>R</i> =.51	<i>R</i> ² =.26	ΔR ² =.23**	<i>F</i> _(2,838) =146.51**
2	양육효능감	.08	.05	.07	1.49
	양육스트레스	-.35	.03	-.42	-10.34 **
	효능감 × 스트레스	-.12	.05	-.10	-2.54 *
		<i>R</i> =.52	<i>R</i> ² =.27	ΔR ² =.00**	<i>F</i> _(3,837) =100.47**

* $p<.05$ ** $p<.001$

위의 표 IV - 4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종속변인인 유아의 사회적 능력에 대한 양육효능감과 양육 스트레스의 중다회귀계수는 $R=.51$ 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유아의 사회적 능력 변량의 약 26%가 양육효능감과 양육 스트레스에 의해 설명되는 것으로 나타났다($R^2=.26$).

다음으로 양육효능감과 양육스트레스 상호작용 항을 추가로 투입한 결과 그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t=-2.54, p<.001$) 양육효능감과 유아의 사회적 능력의 관계에서 양육스트레스의 조절효과가 확인되었다.

아래의 그림 IV -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효능감이 낮은 집단의 경우에는 양육스트레스의 높고 낮음에 따른 유아의 사회적 능력의 차이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반면, 효능감이 높은 집단의 경우에는 양육스트레스가 낮은 집단과 높은 집단 간 유아의 사회적 능력의 차이가 크게 벌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IV - 2. 사회적 능력에 대한 양육효능감과 양육스트레스의 상호작용 효과



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어머니의 자존감, 양육효능감과 유아의 사회적 능력 간의 관계에서 양육스트레스의 조절효과가 있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를 연구문 제별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어머니의 자존감과 유아의 사회적 능력관계에서 양육스트레스의 조절효과가 있는가?

연구문제 2. 어머니의 양육효능감과 유아의 사회적 능력관계에서 양육스트레스의 조절효과가 있는가?

1. 요약 및 논의

첫째, 어머니의 자존감과 유아의 사회적 능력, 양육스트레스 간 유의한 상관 관계가 있는가를 살펴보면, 어머니의 자존감과 유아의 사회적 능력 간 상관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자존감이 높아질수록 유아의 사회적 능력 수준 또한 함께 높아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한편 어머니의 자존감과 양육스트레스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양육스트레스와 유아의 사회적 능력간의 부적 상관계수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어머니의 자존감이 높은 집단은 양육스트레스가 낮고 어머니의 자존감이 낮은 집단은 양육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됨을 의미한다..

어머니는 자존감이 낮을수록 열등하고, 나약하며 무력하다고 느낀다, 자녀양육에 대해서도 자신감이 없고 양육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된다. 이로 인해 어머니는 분명한 한계를 설정하여 지도와 훈육에 일관성 있는 양육보다는 유아의 감정을 인정하지 않고 표현을 제한하며 유아가 저지른 일에 대하여 아동의 탓으로 돌리고 일관성 없이 양육하게 된다. 자존감이 높은 어머니일수록 양육스트레스는 낮고 양육 유능감을 높게 지각하여, 자녀에 대하여 수용적, 애정적이고 친밀한 관계를 갖는다는 이론과 관계가 깊다(권미란, 2007; 김정연, 1993; 노진아, 이숙, 2003; 운현선, 1983; 허영림, 윤희

진, 2002). 또한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낮은 집단의 아동들은 높은 집단의 경우보다 사회적 능력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아동이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필요한 여러 가지 능력을 갖추는 데 어머니가 지각하는 양육스트레스에 따라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을 시사한다.

결론적으로 아동의 사회적 능력을 키워주기 위해서는 부모-자녀간의 관계를 잘 형성 유지하기 위한 어머니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유아기의 아동은 타인을 배려하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성인에 비해 적절히 발달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어머니의 노력이 더 필요하다. 따라서 어머니를 대상으로 올바른 자녀 양육에 대한 부모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시행을 통하여 어머니는 아동에 대해 한층 높은 이해를 하게 됨으로써 스트레스를 적게 지각하게 되며 부모 역할에 대해 자신감을 갖게 된다. 또 나아가 자녀를 양육하는 데 긍정적인 방법들을 사용하여 아동의 발달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 여겨진다.

둘째, 어머니의 자존감과 유아의 사회적 능력관계에서 양육스트레스의 조절효과가 있는가를 살펴보면, 유아의 사회적 능력에 대한 어머니 자존감과 양육스트레스의 양육 스트레스의 중다회귀계수는 $R=.51$ 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유아의 사회적 능력 변량의 약 26%가 어머니의 자존감과 양육 스트레스에 의해 설명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어머니의 자존감과 양육스트레스 상호작용 항을 추가로 투입한 결과 그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어머니의 자존감과 유아의 사회적 능력의 관계에서 양육스트레스의 조절효과가 확인되었다. 즉, 자존감이 낮은 집단의 경우에는 양육 스트레스의 높고 낮음에 따른 유아의 사회적 능력의 차이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반면, 자존감이 높은 집단의 경우에는 양육스트레스가 낮은 집단과 높은 집단 간 유아의 사회적 능력의 차이가 크게 벌어지고 있음을 확인했다. 이와 관련하여 어머니의 자존감, 사회적능력에 있어 양육스트레스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먼저 자존감은 어머니 스스로 자신이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는 가치 있는 존재라고 확신하는 마음인 가치감을 충분히 가질 때, 즉 자존감이 높을 때 유아를 대상으로 온정적인 태도를 보여 유아에게 언어적 신체적 애정표현을 하게 되고 유아에게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도 포용력을 가지고 긍정적인 자세로 유아와 함께 해결책을 강구하게 된다. 어머니의 긍정적인 정서가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친다(김성수, 2006; 송아람, 2006)는 연구, 자신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하고 있는 어머니들은 양육행동에 자신감을 가짐으로 바람직한 자녀관과 양육관을 가지게 된다(한중혜, 홍계옥,

2000)는 연구에서처럼 자존감은 자녀양육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유아의 사회적 능력과도 관련이 있음을 뒷받침 해주고 있다. 그러나 어머니의 이러한 자존감이 유아의 사회적 능력에 있어 양육스트레스는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양육스트레스는 어머니가 유아를 양육하는 것이 큰 기쁨이기도 하지만 육체적으로 힘이 들고, 여러 가지 갈등을 유발시키므로 유아의 행동을 통제함에 있어 일관되고 합리적인 태도를 보이지 못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어머니는 일반적인 자아관념, 의식적임 삶, 개인적인 성실성, 자기수용을 바탕으로 한 자기탐구를 통해 자존감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Mill(1988)에 의하면 ‘자신이 파악하고 있지 않거나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스트레스에 직면할 경우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는 경향이 있다’ 라고 했다. 그러므로 ‘어머니 자신이 직면할 스트레스를 사전에 인지하는 것이 스트레스에 대처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따라서 유아를 양육하는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할 때 유아를 양육하면서 직면하게 되는 어려움에 대해 먼저 인지하고 그러한 스트레스를 감소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셋째, 어머니의 양육효능감과 유아의 사회적 능력, 양육스트레스 간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가를 살펴보면, 양육효능감과 유아의 사회적 능력 간의 상관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이 높을수록 유아의 사회적 능력 수준 또한 함께 높아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또한 양육효능감과 양육스트레스 간의 상관관계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양육스트레스와 양육효능감과 같은 인지적 변인은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으며 유아의 사회적 능력을 검증해 볼 수 있는 유용한 변인으로 설명할 수 있다.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양육지식이 어머니와 자녀와의 상호작용과 양육효능감에 미친다는 선행연구(송영숙, 김영주, 2008; 이영환, 오미연, 2006; Crinic & Greenberg, 1990), 양육효능감이 양육스트레스의 감소와 양육지식에 의해 조절될 수 있음과(송영숙, 김영주, 2008)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양육효능감이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며 조절변인으로 역할을 하여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과(김미성, 전귀연, 2003) 아동발달에 대한 지식과 양육에 대한 효능감은 양육스트레스를 감소시킬 수 있는 중요한 요인으로 본 연구(Coleman & Karraker, 1997, 2003)가 뒷받침 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각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가 유의하며 특히, 유아를 둔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원이 무엇인지를 밝혀 이를 효과적으로 관리 할 수 있어야 하고 보다 긍정적인 자녀양육에 기여하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넷째, 어머니의 양육효능감과 유아의 사회적 능력관계에서 양육스트레스의 조절 효과가 있는가를 살펴보면, 종속변인인 유아의 사회적 능력에 대한 양육효능감과 양육스트레스의 중다회귀계수는 $R=.51$ 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유아의 사회적 능력 변량의 약 26%가 양육효능감과 양육 스트레스에 의해 설명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양육효능감과 양육스트레스 상호작용 항을 추가로 투입한 결과 그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양육효능감과 유아의 사회적 능력의 관계에서 양육스트레스의 조절효과가 확인되었다. 효능감이 낮은 집단의 경우에는 양육 스트레스의 높고 낮음에 따른 유아의 사회적 능력의 차이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반면, 효능감이 높은 집단의 경우에는 양육스트레스가 낮은 집단과 높은 집단 간 유아의 사회적 능력의 차이가 크게 벌어지고 있음을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양육효능감이 높을수록 효율적인 양육행동을 나타내며 대인적응성 중 인기도 및 지도력과 유의한 상관이 있다는 김현미, 도현심(2004)의 연구와 관련 지어 볼 수 있다. 또한 어머니가 유아에게 애정표현과 필요한 도움을 제공하고 자율성에 대한 칭찬과 격려 같은 긍정적인 행동을 보일수록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이 높아진다는 윤은미(2004)의 연구와도 맥을 같이 한다. 이는 양육효능감이 높을수록 긍정적인 양육행동을 나타내며(김현미, 도현심), 이러한 긍정적인 양육행동이 결국 유아의 사회적 능력을 긍정적으로 향상시킨다. 이와 같이 양육효능감이 높고 낮음에 따라 유아의 사회적 능력과 관계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는 그들의 양육행동에도 부정적으로 작용할 뿐 아니라 유아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이현정(1996)의 연구와도 관련이 있다. 이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자녀와의 상호작용에서도 유아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여겨지며,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로 인한 자녀와의 상호작용의 질이 떨어지면 결국 유아의 사회적 능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제 언

본 연구에 있어서 어머니의 자존감 및 양육효능감과 유아의 사회적 능력과의 관계에서 양육스트레스의 조절효과를 검증하였지만 다음과 같이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유아의 사회적 능력을 평가하는 측정 방법의 한계이다. 유아의 사회적 능력을 평가하는 방법에는 또래에 의한 사회성 측정법, 부모나 교사에 의한 평가방법, 행동관찰, 자기보고 등의 방법이 있다. 부모나 교사에 의한 평가방법은 사회적 능력을 구성하는 여러 항목들을 요인 분석하여 만들어진 척도를 통하여 부모나 교사가 유아의 사회적 능력을 평가하는 방법이다. 부모나 교사의 평가는 유아의 행동을 양적인 면보다는 질적인 측면으로 측정할 수 있고 행동이 나타난 상황의 전후 관계가 고려되며, 자료 수집이 쉽다는 이점이 있으나 후광효과를 무시할 수 없고 또래들의 가치와 성인의 가치는 다르므로 또래들과는 다른 기준에서의 유아의 사회적 능력을 평가하게 된다.

본 연구는 유아의 사회적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다양한 평가 방법 중 교사에 의한 평가 방법을 사용했다. 이는 교사가 보다 객관적으로 유아의 사회적 능력을 평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반면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부모나 교사에 의한 평가는 후광효과나 또래들 간의 평가기준이 무시되는 점 등이 단점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정확한 유아의 사회적 능력을 판단하기에는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다. 이에 부모에 의한 보고 및 또래, 행동관찰 등 복합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다양한 각도로 객관적인 측정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만3세~5세의 자녀를 양육하고 자녀가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는 어머니를 중심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는 자녀가 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있는 어머니를 연구 대상으로 반영하지 못한 점, 또한 특정 연령대의 유아를 양육하는 어머니를 대상으로만 조사를 실시하였기 때문에 일반화하기에 다소 무리가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는 이러한 제한점을 보완하여 연구를 한다면 좀 더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특히, 아동의 연령을 학령 전 시기로 제한한 점은 아동 양육의 스트레스는 훈육방식, 아동의 연령 및 발달단계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아동이 성장함으로써 누적되어지는 어머니의 훈육방식의 영향력에 대해서 알 수 없다. 따라서 보다 다양한 연령대에서 검증하고 계층 배경을 다양한 대상으로 비교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어머니에 대한 자료 수집과정에서 자기보고식 답변에 의존했다는 한계가 있다. 검사척도가 매우 사적인 관계 내에서 자신을 노출해야 하는 자존감, 양육효능감, 양육스

트레스 척도로 구성되었다. 피험자가 스스로 자신의 이야기를 방어하거나 더 긍정적으로 진술했을 가능성이 있다. 자기 보고식 질문지가 가지는 단점인 객관적 측정에서의 제한을 보완 할 수 있는 연구 방법이나 도구의 사용이 필요하다. 또한, 양육스트레스는 자녀의 연령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다양한 연령대를 다루고 연구한다면 또 다른 결과를 가져오지 않을까 예측한다. 이와 더불어 유아의 사회적 능력을 설명하는 변인으로 어머니의 자존감, 양육효능감, 양육스트레스 변인을 고려하였으나 현실적으로 유아의 사회적 능력을 설명하는 다른 변인들이 충분히 존재할 수 있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다른 변인과의 관계 파악도 필요하다 할 수 있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본 연구의 몇 가지 의의를 찾아볼 수 있다. 아동의 사회적 능력을 주제로 한 연구들이 대부분 양육행동과의 관계를 살펴보았다면, 본 연구에서는 양육효능감 등 어머니의 인지적 측면과 아동의 사회적능력간의 관계에서 양육행동의 선행변인인 양육스트레스의 조절효과에 대해 살펴보았다. 양육스트레스와 유아의 사회적 능력의 관계 등을 알아보는 연구결과는 많았으나 양육스트레스의 조절효과를 검증한 자료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이에 자존감 또는 양육효능감 유아의 사회적 능력 간의 관계에서 양육스트레스의 조절효과를 검증하여 그 실태를 파악한 것이 효과라 할 수 있다. 즉, 자존감 또는 양육효능감이 낮은 집단의 경우에는 양육스트레스가 높고 낮음에 따른 유아의 사회적 능력에 차이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반면, 자존감 또는 양육효능감이 높은 집단의 경우에는 양육스트레스가 낮은 집단과 높은 집단 간 유아의 사회적 능력 차이가 크게 벌어지고 있음을 확인했다.

따라서 양육스트레스를 어떻게 인지하고 어떻게 관리하느냐의 문제가 중요함을 알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효과적으로 양육스트레스에 대처하고 관리하는 방법모색과 부모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의 방향성 등을 제시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특히 본 연구결과 에서 중요하게 다뤄야할 문제는 어머니의 자존감이나 양육효능감이 높으나 양육스트레스 또한 높은 집단을 위한 대응마련이 시급하다 할 수 있다. 향후 자녀 양육과 관련된 시책 및 정책마련 시 충분히 고려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참고문헌

- 권기정, 진영숙(2010). 어머니의 심리통제와 유아의 행동문제에 관한 연구. **한국아동 심리치료학회지**, 5(2), 51-66.
- 권미란(2007). 어머니의 자존감, 자기 및 자녀평가가 양육태도에 미치는 영향. 경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곽소현, 김순옥(2006). 어머니의 아동기 애착, 정서, 양육행동과 아동의 문제행동의 경로모형 분석.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4(6), 95-116.
- 권연희, 이종희(2005). 아동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 아동의 정서성 및 사회적 행동 간의 관계. **아동학회지**, 26(6), 201-216.
- 공경혜(2004). 어머니의 자아개념 및 양육태도와 자녀의 자아개념과의 관계 : 초등학교 고학년 자녀를 중심으로. 광운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미선(2004). 유아 셀프리더십 프로그램의 효과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미성, 전귀연(2003).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대한가정학회지**, 41(12), 207-228.
- 김명희(1999).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사회적 관계망과 아동이 지각한 양육행동 간의 관계,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선희(2001). 부모의 언어통제유형과 정인지체학생의 감정조망 및 조망단서 활용. 공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성수(2006). 어머니의 낙관성이 양육태도와 유아의 심리적 건강성 간의 관계에 미치는 효과. **영유아교육연구**, 9, 145-170.
- 김성자(2004). 어머니의 자녀 양육스트레스 및 역할 만족도 전반에 관한 질적 연구. 경남과학기술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순혜, 김정원, 『5주만 투자하면 과외공부 안 시켜도 된다』, (서울: 소담출판사, 2009), 19.
- 김은숙(2010). 영아를 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양육행동 간의 관계에 대한 양육 효능감의 조절효과. 계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은영(2005). 양육스트레스, 양육효능감 및 훈육방식과 아동의 심리적 적응문제 간의 관계에 대한 경로분석,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영지(1994). 어머니에 대한 아동의 애착과 사회적 능력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영옥, 홍지명, 김세루, 김권일(2008).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유아의 자기조절력 및 사회적 능력과의 관계. **열린유아교육연구**, 13(1), 205-228.
- 김 연(2007). 유아의 기질 및 심리적 가정환경변인과 유아의 문제행동과의 관계. 경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윤순(2009). 어머니의 취업에 따른 양육스트레스와 유아의 사회적 능력 및 정서 지능과의 관계. 강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정연(1993). 취업모의 관련 변인 및 취업모의 양육행동과 아동의 자아존중감. **한국심리학회**, 6(1), 37-50.
- 김정아(1990). 아동의 사회적 능력과 제 변인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희진(1993). 어머니의 인지와 자아효능감, 감독-모니터 행동과 자녀의 사회적 능력간의 인과관계. Purdue University 박사학위논문.
- 김희호(2003). 청소년의 문제행동 및 인터넷 비행에 대한 모 감독과 심리적 통제의 영향. **청소년학연구**, 10(3), 133-153.
- 김현미(2003).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양육효능감 및 양육행동과 아동의 사회적 능력간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현미, 도현심(2004)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양육효능감 및 양육행동과 아동의 사회적 능력간의 관계. **아동학회지**, 25(6), 279-298.
- 김향은, 정옥분(1999). 자녀의 힘을 북돋우는 부모프로그램이 어머니와 자녀에게 미치는 효과: 어머니의 역할 만족, 의사소통 및 자녀의 자아 존중감, 사회적 능력을 중심으로. **아동학회지**. 20(4). 179-193.
- 김혜진(2003).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사회적 지원과 유아의 사회성 발달에 관한 연구, 인천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고혜진(2005). 양육스트레스와 양육태도의 관계에 미치는 자아탄력성이 중재효과 및 매개효과,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나지혜(2012). 어머니 및 아버지의 양육행동이 유아의 사회적 능력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남소현, 김영희(2000). 어머니의 심리적 환경요인과 아동의 외면적·내면적 적응행동. **대한가정학회지**, 38((10), 199-213.
- 노명희, 박상희(2002).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유아의 정서지능에 관한 연구. **미래유아**

- 교육학회지, 9(3), 107-127.
- 노숙아, 이숙(2003). 자아존중감, 생활만족도 및 직업특성에 따른 취업모의 양육행동. 한국가정과학회지, 6(1), 81-93.
- 노애민(2009). 영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자아분화 및 양육스트레스 수준이 부모 역할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도현심(1994). 유치원 아동 및 6학년 아동의 사회적 능력: 부모의 관심, 보호성, 아동의 성 및 출생범주와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 두금주(2002). 스트레스와 우울간의 관계, 자기효능감과 완벽주의의 매개효과. 이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류수영, 최진아, 이숙(1988).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6(1), 51-61.
- 민수진(2003). 부모-자녀간 자존감 관계와 부모교육의 필요성. 안양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민정임(2011). 어머니의 심리통제와 행동통제가 유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충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민정원(2001). 아동의 애착안정성과 자아지각 및 사회적 능력.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민성원(2010). 양육스트레스가 양육태도에 미치는 영향 : 서울시 동대문구 어린이집 학부모를 중심으로. 경희대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문태형(2002). 어머니의 사고양식 및 양육효능감과 유아의 사회적 능력과의 관계. 아동학회지, 23(6), 49-62.
- 문혁준(2001). 부모역할 만족도와 양육태도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9(1), 205-219.
- 문혜련(1999). 어머니의 사회적 지지체계와 양육스트레스에 따른 유아의 사회적 능력.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문현선(1983). 모의 자아개념 및 양육태도와 학동기 자녀의 자아개념과의 관계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박 경(2012). 교사의 직무만족도와 효능감이 유아의 내·외현적 문제행동과 자아 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광주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박범실(1987). 아동의 사회적 능력과 그 관련변인에 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박지숙(2007). 아동의 기질, 정서조절능력, 어머니의 양육행동 및 아동의 사회적

- 행동 간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진아, 정문자(2007). 불안장애 유아의 기질과 역기능적 정서조절의 관계에 대한 어머니 양육행동의 중재효과. **한국심리학회지 : 상담 및 심리치료**, 19(2), 273-295.
- 박성연, 도현심(1993). 성, 형제수, 출생순위 및 형제 성 구성에 따른 아동의 사회성. **아동학회지**, 14(2), 35-47.
- 박성연, 이은경, 송주현 · Soenens, B.(2008). 부모의 심리적 통제 유형이 청소년의 의존심, 자아비난 및 우울에 미치는 영향. **아동학회지**, 29(5), 65-78.
- 박성연, 전춘애, 한세영(1996). 아동과 어머니의 기질 및 양육스트레스에 따른 양육행동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4(4), 203-215.
- 박수영(2010). 교사의 정서표현성이 아동의 정서표현성 및 사회적 능력에 미치는 영향. 가톨릭대학교 상담심리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수현(2005). 어머니의 양육행동 및 아동의 정서조절 능력과 사회적 유능성.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송림(2012).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양육행동, 양육효능감과 유아의 사회적 능력간의 관계, 계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영진(2004).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및 대처방식과 양육행동.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해미(1994). 자녀양육행동과 관련된 부모의 스트레스 분석.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배인숙(1993). 자폐아동의 적응행동 수준과 그 어머니들의 양육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신민섭, 박선영(2007), 『여덟살의 심리학』, (서울: 원앤원북스), 267
- 신숙재(1997).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사회적 지원과 부모효능감이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신현숙(2005). 어머니의 정서표현 수용태도 및 아동의 정서조절 능력과의 사회적 유능성과의 관계.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서소정(2004). 양육효능감: 자녀양육행동 매개모델. **대한가정학회지**, 42(4), 11-27.
- 서소희(1994). 자폐아 연령군에 따른 부모의 양육스트레스에 대한 조사연구. 대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서유진, 도현심, 최미경(2006). 유아기 아동의 사회적 능력: 수줍음 및 또래관계에

- 대한 어머니의 개입 행동과의 관계.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4(5), 239-249.
- 서주희(2013). **보육교사의 직무만족도, 교사효능감 및 유아의 사회적 능력간의 관계**.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설진화(2005). 정신지체 장애아 부모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효과. **한국가족복지학회지**, 16, 47-74.
- 심희옥(1998). 아동후기 초등학교 학생의 우울 성향: 일상적 스트레스, 자존감 및 사회적 기술과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36(6), 133-144.
- 손화희, 윤종희(1990). 어머니의 자아존중감 및 양육태도와 학동기 자녀의 자아존중감과 관계연구. **아동학회지**, 11(1), 58-71.
- 송아람(2006) **어머니의 심리적 안녕감과 양육태도의 관계가 유아의 심리적 상태에 미치는 영향**. 중앙대학교 사회개발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송연숙, 김영주(2008). 양육스트레스, 양육지식이 양육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열린 유아교육연구**, 13(3), 181-203.
- 송혜영(2007). **아버지의 정서표현성 및 언어통제 유형과 유아의 사회적 능력간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안라리, 김정아(2005).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및 양육스트레스와 유아의 일상적 스트레스 및 또래 유능성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사범대학 교육과학연구소. **교육과학연구**, 36(1). 329-350.
- 안상미(2002). **유아교사의 교사효능감에 따른 교사-유아 상호작용**.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안지영(2001). **2~3세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신념, 효능감 및 스트레스가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안제연(1992). **어머니의 취업에 따른 양육행동과 아동의 사회적 능력과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안현숙(1999). **어머니의 취업여부와 양육태도에 따른 유아의 사회적 능력**. 계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길자(1997). **집단의사소통 프로그램이 역기능적 의사소통, 자아존중감 및 우울에 미치는 효과**. 경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이경민(2001). **여교사 자존감과 삶의 만족도 및 스트레스 대처방식과의 관계**.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경아(2010).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양육효능감이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 중앙대학교 사회개발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민영, 김광웅(2011). 초기청소년이 지각한 부모행동통제 및 내외통제소재와 친구 간 갈등해결전략. **청소년학연구**, 18(2), 193-218.
- 이성현(2012). **유아의 연령 및 성별에 따른 부모의사소통유형과 자녀의 사회적 능력의 관계**. 삼육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상은, 신건호(2003). 어머니와 교사에 대한 유아의 애착안정성과 유아의 사회적 능력과의 관계. **한국교육심리학회**, 17(3), 165-185.
- 이승은, 서현(2007). 어머니의 부모 효능감 및 양육스트레스와 유아의 감성지능과의 관계. **아동학회지** 28(4), 127-144.
- 이슬기(2005). **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의 일-아버지 역할 갈등과 양육스트레스가 양육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경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외영(2002)**부모의 양육태도가 유아의 사회적 능력에 미치는 영향**. 대구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원영(1983). **어머니의 자녀교육관 및 양육태도와 유아발달과의 관련성**.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유진, 박영(2005). 어머니의 우울, 양육스트레스와 아동의 행동문제와의 관계. **심리치료학회**, 5(2), 39-37.
- 이윤선(2008). **어머니의 부모역할 만족도와 유아의 정서지능과의 관계**. 경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정우, 장병우(1987). 기혼여성의 의사소통유형과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아세아 여성연구**, 26, 215-242.
- 이정연(1999). **감성교육 프로그램 적용이 유아의 정서지능과 사회적 능력에 미치는 영향**. 원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정희(2000). **어머니가 인지한 자녀양육스트레스와 유아 부적응행동과의 관계**.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중문(2004). **스트레스 대처 훈련 프로그램의 자기효능감과 스트레스 대처방식에 대한 효과: 소년소녀가장을 중심으로**.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태형(2000). **유아를 위한 사회적 유능감 증진 프로그램의 구성 및 효과 검증**.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한애(2008). 어머니와 교사의 정서표현성이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 성균관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화영(2010). 다자녀 가구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 현(2001). 어머니-자녀관계 향상을 위한 집단활동 프로그램.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이현미(2013). 부모의 의사소통 유형과 정서표현성이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현주(1999).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및 양육태도와 유아의 자아개념과의 관계. 우석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현정(1996). 어머니가 인식하는 자녀양육 스트레스와 유아의 스트레스 행동과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 이혜원(2011). 친사회적 행동과 관련된 변인들의 영향력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임경례(2002). 어머니의 사회적 지지와 유아의 사회적 능력과의 관계. 원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임민택(2006). 가정 환경과 어머니 양육태도가 유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아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임은정(2011). 성별에 따른 유아의 사회적 능력과 관련변인 간의 구조관계분석. 대구가톨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오미영(2010). 기독교 영·유아 부모의 생태학적 변인에 따른 자존감이 자녀 양육태도에 미치는 영향. 충신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우미정(2008). 맞벌이 부모의 양육태도, 양육스트레스와 유아의 사회적 능력과의 관계. 동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우수경(2005). 유아의 사회적 능력과 관련변인간의 구조분석. 열린유아교육연구, 10(2), 193-211.
- 우수경, 정영숙(2003). 부모의 정서표현성과 유아의 사회적 능력간의 관계. 생활 과학연구논총, 7(1), 99-119.
- 우형진(2007), 『넷 전쟁과 인터넷 보안군』, (서울: 삼성경제연구소), 46.
- 우희정, 이숙(1994). 가정환경과 아동의 자기효능감 간의 인과 모형 탐색. 아동학

회지, 15(1), 71-90.

왕해경(2011). 어머니의 신경증적 성향과 완벽주의의 심리적 통제가 유아의 내면화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충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양경화(2001). 일반아동과 자폐아동 어머니의 결혼만족도와 양육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호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양귀화(2001). 자폐아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자아존중감 및 사회적 지지간의 관계. 서울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양외점(1993). 유아의 애착유형과 사회적 능력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여연승(2003). 교사-유아 관계가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과 또래수용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유진희(2006). 부모역할이 유아의 정서능력과 사회적 유능성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유우영(1998). 유아의 사회적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어머니 양육관련변인의 인과관계. 전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유우영, 이숙(1998). 유아의 사회적 적응과 관련변인간의 인과관계-양육스트레스원, 사회적지지, 양육행동을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36(10), 65-78.

유우영, 최진아, 이숙(1998).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사회적지지.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6(1), 51-61.

윤은미(2004). 어머니의 부모 효능감 및 양육행동과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과의 관계. 한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윤지영, 이용주(2006). 유아의 정서지능이 사회적 능력에 미치는 영향. **한국유아교육연구**, 3(1), 146-159.

전경란(1990). 아동이 지각한 형제관계의 질과 아동의 사회적 능력과의 관계.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전경아(2003). 유아의 또래관계 및 교사와의 관계가 사회적 능력에 미치는 영향. 전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전병제(1974). 자아개념 측정 가능성에 관한 연구. **연세논총**, 11, 107-130

전인옥, 이경옥(1999). 유아의 자기 효능감에 대한 인과모형 탐색: 사회 경제적 지위, 어머니의 교육신념과 양육에 대한 자기 효능감, 양육행동의 영향을 중심으로.

- 유아교육연구, 19(1). 169-187.
- 전영주(2010). 어머니의 심리적 안녕감과 유아 문제행동의 관계; 유아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어머니의 대처양식의 매개효과.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전영자(1996). 주부의 자녀 양육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아동·가족복지 연구 1, 159-177.
- 정문자, 이미리(2000). 취업주부의 직업 및 가족 스트레스에 대한 인구학적 변인과 심리적 변인의 상대적 영향력 분석. 대한가정학회지, 38(11), 115-126.
- 정은정(2015) 어머니의 자존감과 낙관성 및 양육스트레스가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 충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정영숙(1992). 가족의 심리적 환경과 아동의 사회적 역량과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정윤주(2004).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의 심리통제와 아동의 행동문제: 아동의 성과 또래 수용도의 중재효과에 대한 탐색. 아동학회지, 25(6), 205-223.
- 정철희(2008), 『21일 공부모드』, (서울: 밀리언하우스), 99-100.
- 정채은, 이종향(2012). 유아의 자기조절과 언어능력, 사회적 능력간의 관계분석. 한국 교육 문제연구, 30(3), 185-203.
- 제갈광철(2000). 정신지체아 어머니의 자아존중감과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대구 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장미정(2011). 유치원의 질과 교사의 직무만족도, 효능감이 유아의 인지, 언어, 정서 및 사회적 능력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장희진(2014). 어머니의 자존감이 유아에 대한 양육태도에 미치는 영향, 호신대학교 기독교상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지혜선(2000). 취업주부의 직업만족도와 어머니 역할만족도 분석.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진미정(1993). 중년기 여성의 어머니 역할 수행 부담 심리적 복지.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진은영(2004). 어머니의 양육신념 및 양육효능감에 따른 유아의 자아개념과의 차이,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조금남(2010). 어머니의 자존감과 양육태도와 유아의 집중력과의 관계 연구. 우석 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조성덕(2012). 어머니의 자존감과 심리통제 및 행동통제가 유아의 문제행동에

- 미치는 영향. 충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조상훈(2007). 교사가 지각한 교사-유아관계가 유아의 사회적 능력에 미치는 영향.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영숙(2007).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양육효능감, 양육행동과 유아의 자기조절 능력간의 관련성 탐색.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최경숙(2006), 『아동발달심리학』, (서울: 교문사), 255.
- 최경순(1993). 아버지의 양육참여도와 아동의 사회적 능력과의 관계. **한국아동학회지**, 4(2), 115-135.
- 최경순, 홍계옥(1996). 유치원 유아의 모자녀 간 애착과 유아의 사회적 능력과의 관계. **아동학회지**, 17(1), 101-116.
- 최선희(2013). 유아의 사회적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유아, 어머니 및 교사변인에 관한 연구. 경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최은정(2012).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놀이 신념이 아동의 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 울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최윤경(2011). 영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교육신념과의 관계 : 충청남도 H지역을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최용주(1993). 학령기 아동의 친구관계에 따른 대체지지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정미(1999). 아동의 사회적 능력에 미치는 어머니 관련 변인의 인과모형 분석: 어머니의 성인기 애착, 결혼적응, 애정적 양육행동을 중심으로. 전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최정미(2002). 아동의 사회적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어머니 관련변인에 관한 연구. **아동학회지**, 23(3), 205-216.
- 최형성(2001). 어머니의 사회적 지원 및 스트레스와 아동의 기질이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최형성(2005). 남녀아 어머니의 양육효능감과 사회적 지원, 스트레스 및 아동의 기질, **아동학회지**, 26(1), 317-328
- 편은숙(2004). 영유아기 자녀를 둔 취업모의 어머니 역할인식과 자녀양육스트레스.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하태화(2009) 여성결혼이민자를 위한 아동양육지원사업의 효과에 관한연구 : 양육 스트레스를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중앙대학교 사회개발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한민경(2003). **아동의 사회적 유능성에 관련된 어머니 양육행동 및 아동의 정서 이해 능력**.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한은규(2004). **아버지의 자녀양육 참여도와 유아의 사회적 능력과의 관계**. 서울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한애희(2009). **유아의 기질, 언어능력 및 대인관계유형이 유아의 사회적 힘에 미치는 영향**. 대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한영옥, 김문혜(2003). 어머니의 심리적 환경과 아동 행동 문제와의 관계에 대한 횡문화적 고찰. **아동학회지**, 24(1),47-59.
- 한종혜, 홍계옥 (2000). 어머니의 자기 지각과 양육행동: 유치원아 어머니를 중심으로. **미래교육학회지**, 7(1), 85-111.
- 허미경, 이소은(2010). 유아의 기질, 어머니의 기질과 조화적합성이 유아의 사회적 능력에 미치는 영향. **열린유아교육연구**, 15(3). 353-373.
- 허영림, 윤희진(1999). 아버지의 심리적 특성요인과 양육행동에 관한 연구: 결혼 만족도, 직업 만족도, 자아존중감, 부친의 양육성 지각을 중심으로, **열린유아교육연구**, 14(2), 145-157.
- 허효순(2006). **지체부자유아 어머니의 자존감, 양육스트레스 및 스트레스 대처**. 전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허태희(2008). **기질과 어머니 양육태도가 유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홍계옥(2001). 어머니의 자기-지각, 양육행동 및 유아의 기질과 유아의 사회적 능력, **아동학회지**, 22(2), 181-194.
- Abidin, R. R. (1990). Parenting stress index short form(PSI/SF). Charlottesville, VA: Pediatric Psychology Press.
- Abidin, R. R.(1992). The determinants of parenting behavior.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21, 407-412
- Abidin, R. R. (1995). Parenting Stress Index(3rd ed). Odessa, FL: Psychological Assessment Resources.
- Achenbach, T. M., & Edelbrock, C. S. (1983). Manual for the Child Behavior Checklist and Revised Child Behavior Profile. Burlington: University of Vermont.
- Bachman, J G.(1970). Youth in transition: Vol. 2: The impact of family

- background and intelligence on 10th-grade boys. Ann Arbor, MI: Survey Research Center, Institute for social Research.
- Bachman, J. G., & O'Malley, P. M. (1983). Self-Esteem; Change and stability between ages 13 and 23. *Developmental Psychology*, (2), 257-268.
- Barber, B. k., Bean, R. A., & Crane, D. R. (2006). Parental support, behavioral control, and psychological control among african american youth; The relationships to academic grades, delinquency, and depression, *Journal of Family Issues*, 27(10), 1135-1356.
- Bandura, A. (1977). Self-efficacy: Toward a unifying theory of behavioral change. *Psychological Review*, 84, 191-215.
- Bandura, A. (1977). Self-efficacy: the exercise of control. New York: W. H. Freeman and Company
- Bandura, A. (1982). Self-fficacy mechanism in human agency. *American psychologist*. 37(2), 122-147.
- Bandura, A. (1989). Regulation of cognitive Process through perceiver self-efficacy. *Developmental Psychology*, 25(5), 729-735.
- Bandura, A. (1996). *Social foundations of thought and action: a social cognitive theory*. Englewood Cliffs : Prentice-Hall.
- Baumrind, D., & Black, A. E. (1967). Socialization practices associated with dimensions of competence in preschool boys and girls. *Child Development*, 38(2), 291-327.
- Belsky, J. (1984). The determinants of Parenting: A Process approach. *Child Development*, 55, 85-96
- Belsky, J., & Vondra, J. (1985). Characteristics, consequences, and determinants of parenting, In L. L'Abate(ed). *Handbook of family psychology and therapy*. Homewood, IL: The Dorsey Press.
- Branden Nathaniel. (1994). 『나를 존중하는 삶』, 강승규 역, 서울: 학지사.
- Branden, N. (1994). *The six pillars of self- esteem*. New York: Bantam Book.
- Borgensneider, K., Small, S. A., & Tsay, J. C. (1997). Child, parent, and contextual influences on perceived parenting competence among parents

- of adolescent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9, 345-362
- Bronfenbrenner, U. (1986). Ecology of family as context for human development. *Developmental Psychology*, 22, 723-742
- Bronson, W. C. (1974). Competence and the growth of personality, In Connolly, K & Baur, J. (Eds.) *The Growth of Competence*. New York: Academic Press, 214-264.
- Calzada, E. J., & Eyberg, S. M. (2002). Self-reported parenting practices in dominican and puerto rican mothers of young children. *Journal of Clinical Child and Adolescent Psychology*, 31(3), 354-363.
- Clarke-Stewart, A. C. P. Gruber, & L. M. Fitzgerald. (1994). Children at home and in day care, Hillsdale, NJ: Erlbaum.
- Coopersmith, S. (1967). The antecedents of self-esteem, San Francisco, CA: Freeman.
- Collins Gary R. (2000). 『크리스찬 카운슬링』, 피현희 · 이해런 공역, 서울: 도서출판 두란노
- Coleman, P. K., & Karraker, K. H. (1998). Self-efficacy and Parenting quality: Finding and future applications. *Developmental Review*, 18, 47-85.
- Coleman, P. K., & Karraker, K. H. (2003). Maternal self-efficacy beliefs, competence in parenting and toddler's behavior and developmental status. *Infant Mental Health journal*, 24(2), 126-148.
- Coleman, P. K., & Karraker, H. H. (1997) Self-efficacy and parenting quality : Findings and future applications. *Developmental Review*, 18, 47-85.
- Cohen, R. J. (1994). *Psychology and adjustment: Values, culture, and change*. Boston: Allyn and Bacon
- Connolly, J and Doyle, A. B. (1981). Assessment of social competence in preschoolers. *Developmental Psychology*, 17(4), 454-462.
- Cowen, E. L., Pederson, A Babigian, H. Izzo, L. D., Trost, M. A. (1973). Long-term follow-up of early detected vulnerable children.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41, 438-446.
- Coie, J. D., Dodge, K. A., & Coppotelli, H. (1992). Dimension of social status: A cross age perspective. *Developmental Psychology*, 18(4), 557-570.
- Crnic, K. A., Greenberg, M. T. (1990). Minor parenting stresses With young

- children, *Child Development*, 61, 1628-1637.
- Crnic, K. A., & Low, C. (2002). Everyday stress and parenting. In M. H. Bornstein(Ed.), *Handbook of parenting*(2nd ed.): Practical Issues in Parenting(vol. 5, pp. 243-268). Hillsdale,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Crnic, K A., & Greenberg, M. T. (1990). Minor Parenting stress with young children. *Child Development*, 61, 1628-1637.
- Cutrona, C. E., & Troutman, B. R.(1986). Social support, infant temperament and Parenting self-efficacy: A mediational model of Postpartum depression. *Child Development*, 57, 1507-1518.
- Cutrona, C E., & Troutman, B. R. (1986). Social support, infant temperament and parenting self-efficacy: A mediational model of postpartum depression. *Child Development*, 57, 1507-1518.
- Dodge, K. A. (1991). Emotion and social information processing. In J. Garber & K. A. Dodge (Eds.), *The development of emotion regulation and deregulati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456-491.
- Dorsey, S., Klein, K., Forehand, R. & Family Health Project Research Group. (1999). Parenting self-efficacy of HIV-infected mothers : The role of social support.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1, 295-305.
- Dumka, L. E., Staerzinger, H. D., Jackson, K. M., & Roosa, M. W. (1996). Examination of the cross-cultural and cross-language equivalence of the parenting self-agency measure. *family Relations*, 45, 216-222.
- Edler, G. M., Eceles, J. S., Ardet, M., & Lord, S. (1995). Inner-city parents under economic pressure: Perspectives on the strategies of parenting.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7, 771-784.
- Featherstone, B.(2002). Research review: Parenting stress and externalizing child behavior by J. Morgan, D. Robinson, & *Child and Family Socail Work*, 7, 219-225.
- Ferketich, S. & Mercer, R. T. (1994). Predictors of paternal role competence by risk status. *Nursing Research*, 43(2), 80-85.
- Fish, Joel, Magee Susan. (2008). 『스포츠 영재로 키우는 엄마의 101가지 방법』, 백종원 역, 서울: 열음사), 299.

- Ford, M. E. (1982). Social cognition and social competence in adolescence *Development Psychology, 18*(3), 323-340.
- Foster, S. L., & Ritch, W. L. (1979). Issues in the assessment of social competence in children. *Journal of Applied Behavior Analysis, 12*(4), 625-638.
- Gary R Collins, '크리스찬 카운슬링', 피현희 · 이해런 공역. (2000). (서울: 도서출판 두란노), 493-494.cf
- Gesten, E. L. (1976). A health resources inventory: The development of a measure of the personal and social comoeotence of primary-grade children.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44*, 775-786.
- Green, K. D., Forehand, R. & Beck, S. R. (1980). An assessment of the relationship among measures pf children's social competence and children's academic achievment. *Child Development, 51*, 1149-1156.
- Gresham, F. M. (1981). Validity of social skills measures for assessing social competence in low-status children: A multivarite investigation *Developmental Psychology, 17*, 390-398.
- Grossman, F. K., Polck, V. S., & Golding, E.(1998). Fathers and children: Predicting and quantity of fathering. *Developmental Psychology, 24*(1), 82-91.
- Hess, S. D. (1981). Approaches to the measurement and interpretation of parent-child interaction. In R. W. Henderson (Ed.), parent-child interaction, theory, research and prospects. NY: Academic press.
- Humphreys Tony. (2006). 『8살 이전의 자존감이 평생 행복을 결정한다』, 윤영삼 역, 서울: 팝콘북스.
- Johnston, C., & Mash, E. J. (1989). A measure of parenting satisfaction and efficacy.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18*, 167-175
- Kaplan, H. B. (1983). Psychological distress in sociological context: Toward general theory of psychological stress. In H. B. Kaplan(Ed.), *Psychological stress: Trends in theory and research*. New York: Academic.
- Kauffman, J. M. (2001). Characteristics of emotional and behavior disorders of children and youth Upper Saddle River, NJ: prentice-hall.
- Kohn, M., & Roseman, B. L. (1972). *A social competence scale and Quarterly, 6*, 577-586.

- Kotchick, B. A., Forehand, R., Brody, G., Armistead, L., Simon, P., & Clark, L. (1997). The impact of maternal HIV infection on parenting in inner-city african american families.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11*(4), 447-461.
- Ladd, G. W. (1983). Social networks of popular, average, and rejected children in school setings. *Merrill-palmer Quarterly, 29*, 283-308.
- Lazarus. R. S., & Folkman, S. (1984). Coping and Adaptation. In W. D. Gentry(ED), *The Handbook of Behavioral Medicine*. New York: Guilford.
- Levy-Shiff, R Dimitrovsky, L., Shulman, S., & Har-Even, D. (1998). Cognitive appraisals, coping strategies and support resources as correlates of parenting and infant development. *Developmental Psychology 34*, 1417-1427.
- Litovsky, V. G., & Dusek, J. B. (1985). Perceptions of Child Rearing and Self-Concept Development during the Early Adolescent Year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14*(5), 373-87.
- Luster, T., & Kain, E. L. (1987). The relation between family context and perceptions of parental efficacy. *Early Development and Care, 29*. 301-311.
- Martin Paul. (2006). 『행복한 아이 만들기』, 송성영 역, 서울: 민음사.
- Meeker Meg 『엄마의 자존감』, 김아영 역. (2012). (서울: 알에이치코리아), 13-300.
- Melson, G. F. (1989). The development of metasocialization: A theoretical framework. *Journal of Applied Denelopmental Psychology, 10*(1), 241-266.
- Merell, K. W. (1999). Behavioral, social, and emotional assessment of children and adolescents. NJ: Erlbaum Associates.
- Mia Tomblom, '자기 긍정 파워', 윤영삼 역. (2007). (서울: 북섬), 23.
- Mill, J. W.(1988).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방법. 김정희(역). 서울 : 성원사.
- Mussen, P. H. (1990). Child development and personality(7th ed). New York: Happer & Row.
- Mussen, P. H., Conger, J. J., & Kangan, J. (1984). Child development and personality, 5th ed., NY: Harper & Row.
- Oden, S., & P. R. Ramsey. (1993). Implementing research on children's social competence: What do teachers and researchers need to learn? *Exceptionality Education Canada.3*(1&2), 29-32.

- O'Mally, J. M. (1997). Research perspective on social competence. *Merrill-Palmer Quarterly*, 23(11), 29-44.
- Olds, A., & R. Olds, Associates. (1989). Psychological and physiological harmony in childcare center design. *Children's Environments Quarterly*, 6(4), 8-16.
- Parke, R. (1981). *Fathers*.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 Patterson, G. R. (1983). Stress: A change agent for family process. in N. Garmezy, & Rutter, M.(Eds.), *Stress, coping and development in children*(PP. 235-264). New York: McGraw-Hill.
- Parker, J. G., & S. R. Asher. (1987). Peer relations add later personal adjustment: Are low-accepted children at risk? *Psychological Bulletin*, 102, 357-89.
- Paul Martin, '행복한 아이 만들기', 송성영 역. (2006). (서울: 민음사), 162.
- Perry, D. G., & Bussy, K. (1984). *Social development*. NJ: Prentice-Hall.
- Rocrique, J R., Geffken, G. R., Clark, I. E., Hunt, F., & Fishel, P. (1994). Parentings atisfaction and efficacy among caregivers of children with diabetes. *Children's Health Care*, 23, 181-191.
- Rosenberg, M. (1965). *Society and the adolescent self image*.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Salovey, P., & Mayer, J. D. (1996). *What is emotional intelligence*. New York: Basic Books.
- Scheel, M. J., Rieckmann, T.(1998). An empirically derived description of self-efficacy and empowerment for parents of children identified as psychologically disordered. *The American Journal of Family Therapy*, 26, 15-27.
- Schaefer, E. S. (1965). A circumplex Model for maternal behavior. *Journal of Abnormal and social Psychology*, 59(2), 226-235.
- Simons, R. L., Beaman, J., Conger, R. D., & Chao, W. (1993). Stress, Support, and antisocial behavior trait as determinants of emotional well-being and parenting practices among single mother.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5, 385-398.
- Sroufe, L. A. & Schork, E. (1984). The role of affect in social competence. In Izard, C., Kagan, J. & Zajonc, R. B.(Eds.). *Emotion, Cognition &*

Behavior, New York: Appleton Century Crofts.

- Synder, J. (1991). Discipline as a mediator of the impact of maternal stress and mood on child conduct problems. *Developmental Psychology, 3*, 263-276.
- Teti, O. M., & Gelfand, D. M.(1991). Behavioral competence among mothers of infants on the first year: The mediational role of maternal self-efficacy. *Child Development, 62*, 918-929.
- Teti, DM., & Gelfand, D. M. (1991). Behavioral competence among mothers of infants in the first year: Mediational role of maternal self-efficacy. *child development, 62*, 918-929.
- Tony Humphreys, '8살 이전의 자존감이 평생 행복을 결정한다, 윤영삼 역. (2006). (서울: 팝콘북스), 18.
- Tornblom Mia, 『자기긍정 파워』, 윤영삼 역. (2007). 서울: 북섬
- Waters, E., Garber, J., Gornal, M., & Vaughn, B. E. (1983). Q-sort correlates of visual regard among preschool peers: Validation of behavioral index of social competence. *Developmental Psychology, 19*(4), 550-560.
- White, R. C. (1979). Motivation reconsidered: The concept of competence. *Psychological Review, 66*(5), 297-333.

<Abstract>

The Influence of Mothers' Self-Esteem and Parenting Efficacy
in the Social Ability of the Young Children
- Moderating Effect of Parenting Stress -

heo hui suk

Counseling Psychology, Graduates School of Education,
Jeju National University

Advisor : Choi Bo Young

This study aimed to verify the moderating effect of the parenting stress in the relation between the mothers' self-esteem and parenting efficacy, and the social ability of the children targeting the mothers who were raising young children in the area of Jeju. In order to achieve this purpose, the following research issues have been set up.

Issue 1. Does the moderating effect of parenting stress work in the relation between the mothers' self-esteem and the children's social ability?

Issue 2. Does the moderating effect of parenting stress work in the relation between the mothers' parenting efficacy and the children's social ability?

In order to verify these issues, a survey targeting the mothers with young children (age : 3 to 5 years) registered in the childcare centers in Jeju Province and their teachers, has been conducted. The research tools of this study are comprised of mothers' self-esteem, parenting efficacy, social ability of young children and the measure of parenting stress. Mothers' self-esteem, parenting efficacy and parenting stress were evaluated by the mothers, and the social ability of young children was evaluated by the teachers of the childcare centers.

A frequency analysis has been conducted to examine the sociodemographic characters

and descriptive statistics of the main variables, along with a correlation analysis to confirm the overall relations between individual variables. Also, in order to investigate the overall relations between the moderator variables(which means the parenting stress), a regression analysis has been conducted. The followings show the results of this study.

First, there was a statistically meaningful relation between the mothers' self-esteem and children's social ability. It means the social ability of the children gets higher as the self-esteem of the mothers gets higher. Meanwhile, there was a statistically negative relation between the self-esteem of the mothers and their parenting stress, and the relation between the parenting stress and social ability of the children showed the same result. Next, as a result of adding the correlation between the self-esteem of mothers and their parenting stress, its effect has been confirmed to be meaningful. This also confirmed that there was a moderating effect on the relation between mothers' self-esteem and children's social ability. In case of the groups with low self-esteem, the difference in the children's social ability based on the degree of the parenting stress was not relatively high, whereas the groups with high self-esteem showed a significant difference.

Second, there was a meaningful relation between the parenting efficacy and the social ability of the children. It means that the social ability of the children goes higher as the parenting efficacy of their mothers becomes stronger. Also, as a result of adding the correlation between the parenting efficacy and the parenting stress, its effect was confirmed to be meaningful, so that the moderating effect of the parenting stress could be verified in the relation between the parenting efficacy and the social ability of the children. That is, in case of the groups with low parenting efficacy, the difference in the social ability of the children based on the degree of the parenting stress was not relatively high, whereas the groups with high parenting efficacy showed a significant difference.

In sum, while the groups with low self-esteem and parenting efficacy had not so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social ability of the children based on the degree of the parenting stress, the groups with high self-esteem and parenting efficacy had a relatively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same factor. This made you realize that the attitude how you recognize the parenting stress and manage it, would be the most important issues. With regard to such issues, this study would be helpful in finding the

ways to effectively manage and control the parenting stress, and suggesting the guidelines to educate parents and operate related programs.

Also, there are some studies, which consider the parenting stress a positive factor, meanwhile this study considered it a “deficit” that had negative influences on the parents. Those studies, especially the ones about general stress, emphasized that mild stress stimulates the growth of the individuals and keeps the most appropriate level of awakening to help their adaptation (Cohen, 1994). The studies of Crnic and Low(2002) also emphasized that some mothers ably handles the fussy or incorrect behaviors of their children, whereas some mothers can be very weak in treating them. Thus, more concrete hypothesis testings would be possible if you consider the characters of the parents, which can influence the degrees or the recognition of the parenting stress, in multiple points of view. Along with this, more comprehensive understanding on the issues would be obtained if you consider not only the factors that influence the parents’ disciplinary styles such as social support, psychological stability and personality, but also many other variables including the disposition of the children and the level of development.

부 록 목 차

부록 I . 인구학적 특성 설문	78
부록 II . 자존감 척도	79
부록 III . 양육효능감 척도	80
부록 IV . 양육스트레스 척도	81
부록 V . 유아의 사회적 능력 척도	82

부록 I .

※ 다음의 문항을 읽고 해당란에 V표 하거나 빈칸에 간단히 기입하여 주세요

NO	내 용
1	○ 어머니의 총 자녀수 : 명(아들 명, 딸 명)
2	○ 자녀의 나이는 : 세 (성별 : ① 남 ② 여) - 만 3세 (2010. 1. 1 ~ 2010. 12. 31) : 한국나이 5세 해당 - 만 4세 (2009. 1. 1 ~ 2009. 12. 31) : 한국나이 6세 해당 - 만 5세 (2008. 1. 1 ~ 2007. 12. 31) : 한국나이 7세 해당
3	○ 2번 문항에 나이를 기재한 아이는 몇 번째 아이인지? ① 첫째 ② 둘째 ③ 셋째 ④ 넷째
3	○ 어머니의 연령 : 만 세 ○ 아버지의 연령 : 만 세
4	○ 어머니의 학력 : ① 중졸이하 ② 고졸 ③ 대졸 ④ 대학원 재학 이상 ○ 아버지의 학력 : ① 중졸이하 ② 고졸 ③ 대졸 ④ 대학원 재학 이상
5	○ 어머니의 직업 ① 전문직(의사, 변호사, 언론인, 교수, 성직자, 연구직 등) ② 사무직(관리직, 회사원, 은행원, 일반 및 교육공무원 등) ③ 판매 및 서비스 직(숙박업, 판매직, 도소매업, 운수업 등) ④ 생산근로직 및 단순노무직(생산직, 단순노무, 시간제 근무, 부업 등) ⑤ 주부
6	○ 아버지의 직업 ① 전문직(의사, 변호사, 언론인, 교수, 성직자, 연구직 등) ② 사무직(관리직, 회사원, 은행원, 일반 및 교육공무원 등) ③ 판매 및 서비스 직(숙박업, 판매직, 도소매업, 운수업 등) ④ 생산근로직 및 단순노무직(생산직, 단순노무, 시간제 근무, 부업 등) ⑤ 무직
7	○ 귀댁의 월평균 수입 ① 100만원 미만 ② 100~200만원 미만 ③ 200~300만원 미만 ④ 300~400만원 미만 ⑤ 400만원 이상
8	○ 귀댁의 가족 형태 ① 핵가족(부부 + 미혼자녀) ② 확대가족(노부모+부부+미혼자녀) ③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9	○ 어머니의 종교 ① 불교 ② 기독교 ③ 천주교 ④ 기타 및 무교

부록 II.

1. “자존감” 척도 (어머니용)

※ 각 문항을 읽고 어머니 자신에게 가장 가깝다고 생각하시는 곳에 √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문항도 빠뜨리지 않고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NO	내 용	전혀 그렇 지 않다	별로 그렇 지 않다	조금 그렇 다	매우 그렇 다
1	나는 내가 다른 사람만큼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느낀다	1	2	3	4
2	나는 내가 여러 가지 좋은 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1	2	3	4
3	대체로 나는 내가 실패한 사람이라는 느낌을 갖는다.	1	2	3	4
4	나는 대부분 다른 사람들만큼은 어떤 일을 할 수 있다.	1	2	3	4
5	나에게 자랑할 만한 것이 별로 없다고 느낀다.	1	2	3	4
6	대체로 나는 내 자신에 대하여 긍정적인 태도를 갖고 있다.	1	2	3	4
7	대체로 나는 내 자신에 대해 만족한다.	1	2	3	4
8	나는 내 자신에 대한 존중감이 더 있으면 좋겠다.	1	2	3	4
9	나는 가끔 내 자신이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느낀다.	1	2	3	4
10	때때로 나는 내가 좋지 않은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1	2	3	4

부록 Ⅲ.

2. “양육 효능감” 척도 (어머니용)

※ 각 문항을 읽고 어머니 자신에게 가장 가깝다고 생각하시는 곳에 √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문항도 빠뜨리지 않고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NO	내 용	거의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대체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부모 노릇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1	2	3	4
2	부모 노릇은 내가 이전에 생각한 것보다 어렵지는 않다	1	2	3	4
3	부모 노릇은 나를 지치고 진 빠지게 한다	1	2	3	4
4	좋은 부모가 되는데 필요한 지식을 잘 알고 있다	1	2	3	4
5	가끔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때가 많아서 아이 기르기에 대한 책을 더 읽어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	1	2	3	4
6	다시 아이를 키우더라도 내가 지금 아이를 키우는 방식으로 키울 것이다	1	2	3	4
7	종종 아이를 실망시킬까봐 걱정이다	1	2	3	4
8	부모로서 올바른 행동을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걱정이 된다	1	2	3	4
9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더라도 결코 좋은 부모가 될 것 같지 않다	1	2	3	4
10	때때로 아이를 소홀히 대하는 것에 대해 죄책감을 느낀다	1	2	3	4
11	부모로서 모든 책임을 잘 해내는 것은 나의 능력중 하나이다	1	2	3	4
12	부모 노릇은 많은 책임과 문제가 따르지만 나는 항상 그런 어려움을 잘 처리한다고 느낀다.	1	2	3	4
13	내가 아는 다른 부모들과 비교할 때 나는 아이를 훈육하는데 별로 어려움을 겪지 않는다.	1	2	3	4
14	아이를 키우면서 사랑과 훈육이 적절한 균형을 이루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한다	1	2	3	4
15	아이에 대해 아무런 통제력이 없다고 느낄 때가 많다.	1	2	3	4

부록 IV.

3. “양육 스트레스” 척도 (어머니용)

※ 각 문항을 주의 깊게 읽으시고 자신에게 해당되는 정도에 따라 “전혀 그렇지 않다”(1)에서부터 “매우 그렇다”(5)에 V표 해주십시오

NO	내 용	전혀 그렇 지 않다	그 렇 지 않 다	보 통 이 다	그 렇 다	매 우 그 렇 다
1	아이가 너무 활동적이어서 나를 지치게 한다	1	2	3	4	5
2	아이가 원하는 것은 끝내 들어주어야 한다	1	2	3	4	5
3	아이는 나를 좋아하지 않으며 나와 가까이 있기를 원하지 않는다	1	2	3	4	5
4	아이는 다른 아이들보다 많이 울고 짜증을 낸다	1	2	3	4	5
5	아이의 행동이 내가 기대하는 것과 다를 때 나는 매우 화가 난다	1	2	3	4	5
6	아이는 나에게 요구하는 것이 너무 많다	1	2	3	4	5
7	아이에게 좋은 부모가 될 수 있을지 확신이 없다	1	2	3	4	5
8	아이와 친밀하고 따뜻한 느낌을 갖는데 오랜 시간이 걸린다	1	2	3	4	5
9	아이를 위해 나 자신에 대한 것들을 포기한다	1	2	3	4	5
10	아이를 가진 이후에 처가(시댁)식구나 친척들과 관련된 문제들이 많아졌다	1	2	3	4	5
11	신체적으로 건강이 좋지 못한 편이다	1	2	3	4	5
12	아이로 인해 좋은 느낌을 갖거나 흐뭇한 느낌을 가진 적이 거의 없다	1	2	3	4	5
13	아이는 장난감을 보통 10분 이상 가지고 놀지 못한다	1	2	3	4	5
14	아이는 다른 아이들보다 뭐든지 빨리 배우지 못한다	1	2	3	4	5
15	아이는 주변이나 일상의 변화에 적응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보인다.	1	2	3	4	5
16	나는 부모 역할을 하는 것이 어렵다	1	2	3	4	5
17	아이가 무엇을 원하는지 쉽게 이해할 수 없다	1	2	3	4	5
18	아이가 뭔가 잘못 했을 때 매번 나는 그것이 내 잘못이라고 느낀다.	1	2	3	4	5
19	아이를 가진 이후로 부부간 사소한 일에도 말다툼이 잦다	1	2	3	4	5
20	대부분의 아이들보다 내 아이를 돌보는 일이 더 힘들다고 생각한다.	1	2	3	4	5
21	아이를 돌보는데 문제가 생겼을 때 나에게 도움이나 충고해 줄 사람들이 거의 없다	1	2	3	4	5
22	아이를 가진 이후로 잠자는 시간이 불규칙해졌다	1	2	3	4	5
23	아이를 가진 이후로 친구를 만나거나 새로운 친구를 사귀는 것이 어렵다	1	2	3	4	5
24	아이에게 어떤 일을 시키거나 저지하는 일이 어렵다	1	2	3	4	5

부록 V.

4. “유아의 사회적 능력” 척도 (교사용)

※ 각 문항을 주의 깊게 읽으시고 아이가 해당되는 정도에 따라 “전혀 아니다” (1) 에서 부터 “아주 그렇다”(5)에 V표 해주십시오

NO	1. 사회적 활동성 : (이 아이는 ~)	전혀아니다	아니다	보통이다	그렇다	아주그렇다
1	친구들과 놀이를 할 때 자기가 먼저 어떤 놀이를 하자고 제안 한다	1	2	3	4	5
2	친구들과 놀 때 적극적인 편이다	1	2	3	4	5
3	친구들과 놀 때 친구들에게 장난감을 갖고 노는 방법을 알기 쉽게 설명해 준다	1	2	3	4	5
4	다른 아이들에게 게임하는 방법을 가르쳐 준다	1	2	3	4	5
5	여럿이 하는 활동을 자기가 먼저 생각해 낸다	1	2	3	4	5
6	놀이를 할 때 스스로 새로운 것을 고안해 낸다	1	2	3	4	5
7	자기가 보고 들은 것에 대해 선생님께 이야기 한다	1	2	3	4	5
8	처음 만난 아이들에게도 말을 건다	1	2	3	4	5
NO	2. 안정성 : (이 아이는 ~)	전혀아니다	아니다	보통이다	그렇다	아주그렇다
1	처음 보는 아이들과도 잘 어울려서 논다	1	2	3	4	5
2	낯선 장소에 가면 불안해 하고 위축 된다	1	2	3	4	5
3	모르는 어른이 말을 붙여도 회피하지 않고 반응 한다	1	2	3	4	5
4	다른 유아에게 접근하기를 두려워 한다	1	2	3	4	5
5	자신이 무엇을 해야 될지에 대해 걱정하고 불안해 한다	1	2	3	4	5
6	다른 아이와 놀다가 뜻대로 되지 않으면 쉽게 화를 낸다	1	2	3	4	5
7	어려운 상황에서 금방 울거나 당황해 한다	1	2	3	4	5
NO	3. 협조성 : (이 아이는 ~)	전혀아니다	아니다	보통이다	그렇다	아주그렇다
1	교사나 친구의 말에 귀 기울인다	1	2	3	4	5
2	다른 아이가 제안하는 놀이도 잘 따라 한다	1	2	3	4	5
3	주위의 상황을 잘 알아 그에 맞게 행동 한다	1	2	3	4	5
4	다른 유아를 잡아당기거나 소리치거나 밀거나 하는 방해 행동을 한다	1	2	3	4	5
5	다른 아이들과 장난감을 나누어 가지고 논다	1	2	3	4	5
6	다른 유아를 기꺼이 도와 준다	1	2	3	4	5
7	다른 아이의 생각과 제안을 잘 받아들인다.	1	2	3	4	5
NO	4. 참여 및 자율성 : (이 아이는 ~)	전혀아니다	아니다	보통이다	그렇다	아주그렇다
1	놀이와 작업에 열심히 참여 한다	1	2	3	4	5
2	자신의 의견을 충분히 표시할 수 있을 정도로 유아들과 상호작용이 원만하다	1	2	3	4	5
3	다른 유아와 놀 때 어려움이 생겨도 상에게 도움을 청하지 않고 스스로 해결한다	1	2	3	4	5
4	목적 없이 이리저리 다니다가 없어서 무엇인가를 바라보며 시간을 보낸다	1	2	3	4	5
5	어려움에 직면 했을 때 쉽게 포기 한다	1	2	3	4	5
6	활동을 계획하거나 활동할 때 성인에게 의존하지 않는다	1	2	3	4	5
7	활동의 종류가 바뀔 때 새로운 활동에 쉽게 참여하려 하지 않는다.	1	2	3	4	5
NO	5. 사회적 규범에 대한 순응성 (이 아이는 ~)	전혀아니다	아니다	보통이다	그렇다	아주그렇다
1	교사가 어떤 제안을 할 때 싫은 표정이나 몸짓을 하지 않는다	1	2	3	4	5
2	놀이방식에 대해 교사의 제안을 받아들인다.	1	2	3	4	5
3	공동 생활에 필요한 규칙을 지킨다	1	2	3	4	5
4	물건들을 치울 때 조심성 있게 다룬다	1	2	3	4	5
5	규칙을 어긴 유아와는 잘 놀려고 하지 않는다	1	2	3	4	5
6	누군가 자신의 행위를 흉내거나 바로 잡아주려고 하면 민감한 반응을 보인다	1	2	3	4	5
NO	6. 지도성 : (이 아이는 ~~~)	전혀아니다	아니다	보통이다	그렇다	아주그렇다
1	다른 아이들과 놀 때 자주 대장 노릇을 한다	1	2	3	4	5
2	다른 아이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준다	1	2	3	4	5
3	이 아이가 주도하는 행동을 다른 아이가 따라한다	1	2	3	4	5
4	다른 아이들과 어울려 놀 때 여럿이 함께 하는 활동을 먼저 주도한다.	1	2	3	4	5
5	함께 벽만 알라도 교사나 다른 아이들에게 청하지 않고 혼자 힘으로 해결한다.	1	2	3	4	5
6	어떠한 일을 할 때 그 상황을 잘 파악해서 결정한다	1	2	3	4	5
7	다른 아동들을 지배하고 주도적 역할을 한다	1	2	3	4	5

